

宮中舞踊服飾에 관한 研究(제2보)

- 고려시대 발생된 무용을 중심으로 -

대경대학 패션디자인과

교수 남 후 선

目 次

I. 序 論

II. 高麗時代宮中舞踊服飾

1. 唐樂呈才服飾

- 1) 獻仙桃
- 2) 壽延長
- 3) 拋毬樂
- 4) 五羊仙
- 5) 蓮花臺

2. 鄉樂呈才服飾

- 1) 舞鼓
- 2) 牙拍

III. 宮中舞踊服飾에 나타난 陰陽五行思想

IV. 結 論

參考文獻

ABSTRACT

I. 序 論

무용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부터 있어온 종합예술로서 집단적이고 무속적인 종교의식에서 비롯되었다. 한국무용의 기원도 예외가 아니므로 단군이후 각 지방에서 매년 正月과 十月에 부락민이 함께 모여 신단에 제사하고 춤과 음악으로 즐겼던 풍속이 있었는데, 이때의 무용은 원시적 집단가무로서 오늘날 우리무용의 원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후 왕권정치의 본격적인 틀이 잡힌 삼국시대로 오면서 宮中에 전문 무용가를 두어 국가행사와 의식 또는 경축 등 연중행사의 향연에서 무용이 행해졌다. 고려시대·조선시대에는 외래문화와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여러 유형의 무용이 유입되었다. 무용들은 우리의 감정에 알맞게 재구성되어 오

늘날 수십여종이 전해지고 있다.

宮中舞踊은 왕실을 중심으로 나라의 경사나 宮中の 연회, 사신을 위한 접견 등 각종 연회에서 추던 무용을 말하며 일명 朶才라고도 한다.

고려시대 발생된 朶才는 「高麗史」樂志에 보면 크게 唐樂呈才와 鄉樂呈才가 전해지고 있다. 唐樂呈才는 당나라 이후 송나라 때까지 우리나라에 들어온 중국의 속악에 맞추어 춤을 추는 것이고, 鄉樂呈才는 당악의 대칭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는 것이다.¹⁾

춤의 형식에 따른 唐樂呈才와 鄉樂呈才의 차이점은 당악정재는 춤을 인도하는 竹竿子²⁾가 있으며,, 開場²⁾과 收場³⁾에서 격식을 갖추는 口號와 致語가 반드시 수반되며 당악반주에 맞추어 한문으로 된 장사를 죽간자와 무원이 부른다. 唐樂呈才에서의 죽

1) 李惠求, 「韓國音樂研究」, 國民音樂研究會, 1957, p.85

2) 무대에서 舞員이 입장하는 때

3) 무대에서 舞員이 물러가는 때.

간자란 拳竹竿子로 춤의 향도적 구실을 하는 일종의 儀仗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또한 반드시 두 사람으로 한 쌍을 이루는데 獨舞에는 없고 複數 이상의 群舞에 있으며 언제나 좌우의 끝 사람의 앞에 자리하고 元舞와는 늘 거리를 두고 진퇴한다. 이것에 비해, 鄉樂로才是 죽간자의 인도가 없이 무대에 바로 들어가 큰절을 하고 府伏했다가 다시 일어나서 춤을 시작하고 역시 부복했다가 일어나서 물러가는 것으로 춤을 마치는 것이 서로 다르다. 이밖에 唐樂로才是 한문으로 된 唱詞를 죽간자와 무원이 부르는데 반하여 鄉樂로才是 우리말로 된 노래를 부르는 것이다.

로才是 儀式的이고 宗教的인 行事를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지고 創製되었으나 세월의 흐름에 따라 본연의 목적인 儀式節次와 行事는 소홀해지고, 그에 따른 춤이나 音樂만이 반복 사용되는 동안 하나의 形式美와 洗煉美를 갖춘 獨立된 藝術로 再構成發展되어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부분적으로 再現되어 내려오고 있다.

본 논문은 삼국시대 발생된 “宮中舞蹈服飾에 관한 研究(제1보)”⁵⁾의 후속연구로서 고려시대 때 발생된 궁중무용을 당악정재와 향악정재로 나누어 복식 변천사를 재정리하고, 복식에 스며있는 음악오행사상을 살펴봄으로써 궁중무용복식에 관한 이해를 돕고 아울러 우리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계승,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문헌자료와 회화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II. 高麗時代 宮中舞蹈服飾의 變遷

新羅末期에 귀족들의 反亂이 일어나고 마침내 後

三國의 분열이 일어났다. 고려는 太祖 王建에 의해 탄생(918年)후 朝鮮開國(1392年)까지 475년간의 고려문화의 새로운 章을 열었다. 王建은 분열된 후 삼국을 통일하여 민족적 재통일을 실현하고 제도를 완비하고 중앙집권제를 확립하여 신라 사회보다 강력한 왕권체제를 이룩했다. 佛敎는 王室의 보호와 장려 밑에 高麗社會의 정신면을 지배하였다. 따라서 고려시대의 음악은 佛敎的인 影響을 많이 받았고, 그에 따른 무용도 불교적인 색채가 강하게 나타났는데 연등회와 팔관회가 대표적인 행사이다. 燃燈會와 八關會는 太祖원년부터 계속 시행되었는데 燃燈會란 燈供養의 法會를 뜻하여 4월 파일 석가탄신일이라든지, 그밖의 날에 등불을 밝히는 의식으로 특히 2월 보름을 燃燈會라 하여, 王은 奉恩寺에 가서 排佛하고, 八關會는 11월 15일에 王은 法王寺에 拜佛한 후, 君臣이 춤추며 노래하고 술마시며 同樂하는 동시에 불덕을 기리고, 천지신명을 즐겁게 하여 國家와 王室의 태평을 기원하는 것이었다. 또한 中國과 交流가 활발하여 文化文物이 들어오면서 宮中로才도 많이 流入되었는데, 宋代 教坊樂⁶⁾의 전성기라 할 수 있는 仁宗(1022-1063)시대는 고려조 제11대 文宗初期에 해당하는데, 이 시기는 음악과 무용도 눈부시게 발달하였다. 「高麗史」에 의하면 “文宗27年(1073)에 教坊 女弟子 眞卿 등 13인이 연등회에 답사행가무를 쓸 수 있도록 윤허를 받고, 그 해 11월 八關會에서 拋毬樂, 九長幾別伎, 王母隊의 가무를 임금이 중광전에 나아가 樂舞를 감상할 때 女妓인 초영이가 55인을 이끌고 춤을추며 ‘君王萬歲’ ‘天下太平’이라는 글자모양을 만들었다.”⁷⁾ 한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의 Mass-game과 같은 것이다. 그 후 睿宗 9年(1114年)에는 宋나라의 新樂器

4) 張師勛, 「韓國舞蹈概論」, 大光文化史, 1989, pp.25-26.

5) 남후선·이정옥, “宮中舞蹈服飾에 관한 研究(제1보)”-삼국시대 발생된 무용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2(2), 1988.

6) 교방악:중국에서 慶賀와 宴饗을 위해 연주 상연되던 음악

7) 純祖 己丑 「進儀儀軌」, 卷1 樂章條.

宋詩詞曲有仙呂宮王母桃之名麗朝倣作獻仙桃曲以爲頌祝之樂我朝亦用之桃凡三縣以木磨成枝葉以銅鐵爲之盛之銀盤

와 同14년에는 大晟雅樂이 들어왔고, 또한 공양왕 3년(1391) 雅樂署를 설치하고 宗廟樂歌를 익히게 하여⁸⁾ 종합적이고 독자적인 高麗文化藝術의 터전을 이루었다.

高麗時代에 들어온 唐樂呈才로는 「高麗史」樂志 唐樂條에 보면 獻仙桃, 壽延長, 拋毬樂, 五羊仙, 蓮花臺舞 5종류의 춤추는 절차가 기록되어 있다. 이것의 내용은 모두가 군왕을 축하하는 것이다. 이러한 唐樂을 도입한 것은 대체로 연등회와 팔관회 등의 대연을 축하하는 절차를 갖추기 위한 것이 주요 목적이었을 것이다. 鄉樂呈才는 「高麗史」樂志 俗樂條에 舞鼓, 動動이 있다.



〈圖 1〉 正祖 乙卯, 獻仙桃

1. 唐樂呈才 服飾⁹⁾

1) 獻仙桃

헌선도는 唐樂呈才의 대표적인 춤으로 왕의 생신을 축하하기 위하여 王母가 仙界에서 내려와 장수의 상징인 복숭아를 담은 선도반¹⁰⁾을 왕에게 드린다는 내용으로, 고려조에 전래되어 조선조를 거치는 동안 내용 및 형식면에서 커다란 變形없이 거의 그 原形을 保存하면서 전해 내려온 춤이다.

獻仙桃 내용은 「高麗史」樂志와 「樂學軌範」 및 「宮中呈才舞圖笈記」 등에 전한다. 「高麗史」에 의중 21년(1167) 4월초에 獻仙桃, 拋毬樂 등을 상영하였다¹¹⁾고 한다. 또 순조기축 악장조에 보면 “헌선도는 宋詩 詞曲에 仙女宮과 王母桃가 있는데 이를 고려조에서 모방하여 헌선도곡을 지어 송축악

을 삼았고 조선시대에도 계속했다. 천도가 3개인데 나무로 만들고 枝葉은 동질로 만들어 채색했다.”¹²⁾

따라서 獻仙桃는 대개 文宗때쯤 들어 왔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후 “高麗時代의 연등회와 팔관회에서 獻仙桃가 행해졌으며”¹³⁾ 조선시대 말까지 宮中宴會때 獻仙桃가 연행되었다.

헌선도의 복식을 문헌에 나타난 그림으로 살펴보면 〈圖 1〉은 정조 19년 헌선도로 맨 앞 중앙의 여령(王母)은 복숭아를 담은 선도반을 들었으며, 양 옆 2인은 죽간자를 들었고, 그 옆 2인과 아래에 24인의 여령이 있는데, 그 중앙에 2인의 동기가 있다. 복식 형태는 여령들은 화관·황초삼·홍초상·홍수대를 입었고, 동기는 새앙머리·단의·홍초상·수대를 입었다.

8) 張師助, 「韓國音樂史」, 正音社, p80.

9) 「高麗史」, 卷 71, 樂志, 唐樂呈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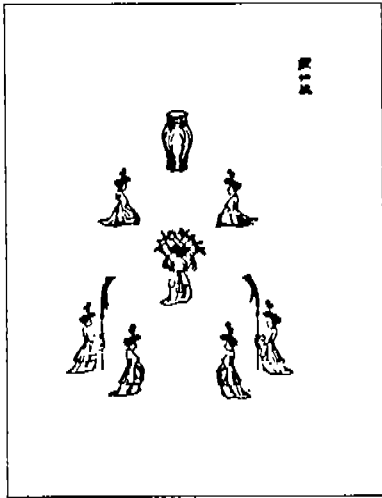
10) 仙桃는 3000년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며, 이를 하나만이라도 먹는 자는 3000년을 살 수 있다고 믿는 데서 연유한 것으로 이와 같은 풍속은 우리나라에서는 사라진 듯 하나, 중국에서는 사람들이 생명을 축하할 때 복숭아를 진상하며 기쁨을 나누는 풍속이 남아있다.→안계승, “당악정제에 관한 연구”, 경희대석사학위.

11) 「高麗史」, 卷18, 世家.

12) 純祖 己丑 「進饗儀軌」, 卷1 樂章條.

宋詩詞曲有仙呂宮王母桃之名麗朝做作獻仙桃曲以爲頌祝之樂我朝亦用之桃凡三縣以木磨成枝葉以銅鐵爲之盛之銀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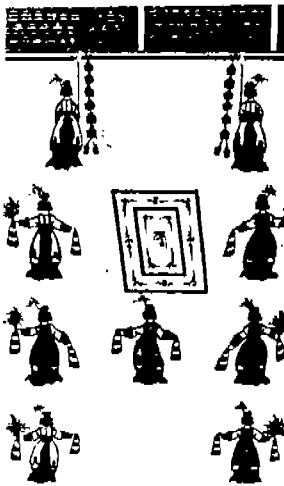
13) 李能和, 「朝鮮解語花史」, 民俗院, 1981, p4.



〈圖 2〉純祖 己丑, 獻仙桃



〈圖 3〉高宗 丁亥, 獻仙桃



〈圖 4〉光武 辛丑, 獻仙桃



〈圖 5〉光武 壬寅, 獻仙桃

〈圖 2〉는 순조29년 헌선도로 선도반을 든 여령 1인과 죽간자를 든 여령 1인과 그 옆에는 2인의 여령이 있는데, 여령복식은 순조 기축 「進饌儀軌」에 화관·초복단의·황초삼·이남색상표홍초상·홍단금루수대·오색한삼·초복혜를 신었음을 알 수 있다.¹⁴⁾

〈圖 3〉은 고종24년 헌선도로 증앙에 선도반을 든 여령 1인과 그 옆에는 4인의 여령이 있으며, 아래에

는 죽간자를 든 2인의 여령과 1인은 그들 중간에 있다.

〈圖 4〉는 연세대학교 소장 광무5년 7월에 행해진 헌선도로, 증앙에 선도반을 든 여령 1인과 옆에는 4인의 여령이 있으며, 아래에는 죽간자를 든 여령 2인과 그 중간에 1인의 여령이 있는데, 복식의 형태와 복색을 가장 잘 살펴볼 수 있다. 상의는 초특색 저고리와 소매가 짧은 황초삼을 입고, 하의는

14) 純祖 己丑 「進饌儀軌」 工伶條.

“各舞呈才女伶載花冠着草綠丹衣黃緞單衫裏藍色裳表紅綃紅緞金鏤緞帶繫五彩汗衫草綠鞋

길이가 긴 남색상 위에 앞만 가리는 홍초상을 입고, 홍수대를 띠고, 오색한삼을 하고 머리에는 화관을 쓰고 있다. 광무 신축 「進饌儀軌」와 「進宴儀軌」에서 일반여복복식은 “花冠·綠綃單衫·裏藍色裳表紅綃裳·紅緞金縷繡帶·草綠鞋·五色汗衫”라고 하여 衫이 모두 녹초삼으로 기록되었는데 <圖 4>는 황초삼으로 되어있어 혼란이 생긴다.

<圖 5>는 光武6년 헌선도로 외연에서는 무둥이, 내연에서는 여령이 추었는데 춤 배치는 <圖 4>와 같다.

獻仙桃 服飾을 시대별로 나타내면 <表-1>과 같다.

<表-1>에 나타나 있듯이 헌선도복식은 「樂學軌範」에 唐樂呈才 女妓의 복식은 “妓黑衫紅帶”이고, 俗樂呈才 女妓의 복식은 “妓丹粧”이라고 하여, 헌선도는 당악정재로 흑장삼·남적고리·홍색상·홍색대·혜”였으나, 정조19년 이후 儀軌에서는 황초삼·홍초상·수대·화관·초록혜·오색한삼으로 변화되었고, 광무5년 이후는 녹초삼으로 변화된 것을 알 수 있다.

「樂學軌範」의 “妓黑衫紅帶”를 입은 헌선도 복식 형태는 <圖 6>과 같다.¹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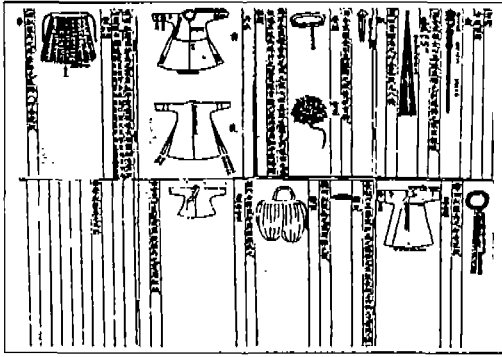
「樂學軌範」의 獻仙桃 服飾형태는 다음과 같다.

<表-1> 獻仙桃服飾의 時代的 變遷

	출처	상 의	하 의	대	관	신	기 타
	「高麗史」 樂志						★樂官黑衣幘頭, 妓黑衫紅帶
女妓	「樂學軌範」 卷9, 女妓服飾條	黑長衫, 藍赤占里	紅色裳 (속칭: 卍老), 襖裙	紅色帶	箴, 流蘇, 釵	鞋兒	首花, 帶腰 ★唐樂呈才: 妓黑衫紅帶 ★俗樂呈才: 妓丹粧
女妓	*正祖19년(1795, 을묘) 「園幸乙卯整理儀軌」	黃納衫	紅納裳, 紅納襖裙	繡帶	花冠		童妓(2인): 丹衣, 紅納裳, 繡帶, 새앙머리
女伶	純祖29년(1829, 기축) 「進饌儀軌」	卷3, 工伶條	黃納衫, 草綠丹衣	裏藍色裳, 表紅納裳	紅緞金縷繡帶	花冠	草綠鞋 五色汗衫
"	憲宗14년(1848, 무신) 「進饌儀軌」	卷3, 工伶條	黃納單衫	"	"	"	"
"	高宗24년(1887, 정해) 「進饌儀軌」	卷首, 圖式	黃納衫	紅納裳	繡帶	花冠	草綠鞋 五色汗衫
"	光武5년(1901, 신축) 「進饌儀軌」 「進宴儀軌」	卷3, 工伶條	綠納單衫	裏藍色裳, 表紅納裳	紅緞金縷繡帶	花冠	草綠鞋 "
女伶	光武6년, (1902, 임인), 「進宴儀軌」	卷3, 工伶條	"	"	"	"	"
舞童	光武6년, (1902, 임인), 「進宴儀軌」	卷首, 圖式	紅不袖衣, 色同袖衣, 白單衣	紅不袖裳	紅藍也帶	花冠	

15) 「樂學軌範」, 卷9, 冠服圖說條.

女妓服飾: ○箴用金或鍍金以眞珠及雜色刺珠飾之或用假珠○流蘇(俗稱首沙只)以紫納爲之印花紋凡八條○釵用金或鍍金以眞珠飾之釵髮妓首飾○臺腰用金或鍍金爲花或九或七以眞珠及雜色刺珠飾之或用假珠黑段爲抹付之被髮妓首飾○花與葉用細苧布蜂蝶用彩絲○丹衣以紅羅或紗爲之裏用紅苧布前短後長領圓袖及左右挾以藍段白納連補○裳(俗稱卍老)以紅段爲之外垂雜色段纒八印花紋○帶以紅納爲之印花紋○黑長衫以黑羅或紗爲之捲袖. 凡衣服長短. 不必拘尺寸. 當隨人體大小○鞋兒以紅緞爲之. 或用雜色緞○襖裙以白緞或紗羅縷縐爲之○藍赤古里以藍緞或羅縷爲之. 裏用紅絨



〈圖 6〉「樂學軌範」女妓服飾

① 箴, 流蘇, 釵

머리를 장식하는 것으로, 箴·流蘇·釵가 있다. 箴은 금 또는 도금을 하여 진주와 갖가지 색의 구슬로 장식한다. 流蘇는 자색의 초로 만들며 금화문을 박는데 모두 여덟가닥으로 된 속칭 머리사기(首沙只)라고 한다. 釵는 금 또는 도금을 쓰며 진주로 꾸민다. 斂髮妓(머리를 쪽진 年壯妓)의 머리를 장식하는 머리 장식에 쓰인다.

② 鬘腰

대요는 금 또는 도금으로 꽃을 7개 또는 9개 만들고 진주와 각가지 색의 구슬로 꾸며서 흑색단으로 만든 抹(머리띠)에 붙인다. 被髮한 女妓의 首飾이다.

③ 首花

꽃과 잎은 고운 모시를 쓰며 벌나비는 채색실을 쓴다.

④ 紅色裳

홍색상은 홍색비단으로 만들고, 밖에는 금화문을 박은 갖가지 색의 끈모양으로 된 것을 8가닥 드리운다. 속칭 甫老(아래에 두르는 치마)라 한다.

⑤ 帶

대는 홍색초로 만들며 금화문을 박는다.

⑥ 黑長衫

장삼은 라 또는 사로 만들고 소매 끝은 견어 올린다. 무릎 의부의 길이는 체형에 관계하지 않고 땅에 끌릴 정도로 한다.

⑦ 藍赤古里

저고리는 남색비단 또는 라, 능, 초로 만들며 안은 홍색으로 한다. 이외에 袂, 말근을 입었다.

⑧ 鞋兒

鞋는 홍단으로 만드는데 갖가지 색의 비단을 쓰기도 한다.

덧붙여 俗樂呈才에서 입은 “妓丹粧”¹⁶⁾은 당악정재의 흑장삼 대신에 단의만 입은 것으로 丹衣는 홍색 라 또는 사로 만든다. 안은 홍색 모시를 사용하고 앞자락이 짧고 뒷자락이 길며, 목은 둥글고 소매와 좌우 겨드랑이 결막이는 남색단으로 하고 소매 끝은 홍초를 잇대어 깎는다.

정조이후에 보이는 여령복식 형태는 일반여령복식 〈圖 4〉와 같다.

2) 壽延長

壽延長은 고려초 성종때 崔成老의 上訴에 의해서 춤으로 위어진 것이다.¹⁷⁾

壽延長은 高麗時代의 宮中연회에서 壽宴을 축하하기 위해 불리운 노래 형태를 唐樂呈才의 틀에 얹어 근왕이 飲酒할 때 唱하던 것을 歌舞戲로 확대시킨 大曲(음악, 무용, 시가가 결합된 가무곡)의 하나이다.

수연장의 복식형태를 문헌에 나타난 그림으로 살펴보면 〈圖 7〉은 정조19년의 수연장에는 맨 위에 축간자를 둔 여령 2인이 있고, 옆에는 19인의 여령이 춤을 추고 있으며, 아래에는 동기 2인과 여령 14인이 있는데 여령의 복식은 화관·홍초삼·홍초

16) 「樂學軌範」 卷9, 女妓服飾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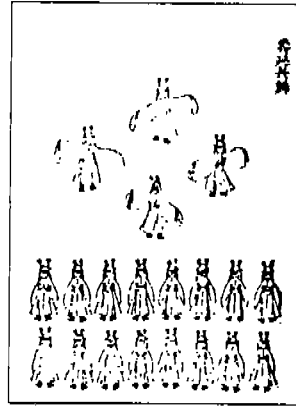
勤天庭賀聖明呈才丹粧制同用紅綠藍羅裏用絢色從表今不用

17) 弘文館纂, 「增補文獻備考」, 卷106. 影印本, 東國文化社.

“壽延長者 不知始何時高麗 成宗時 崔成老疏論 奉佛之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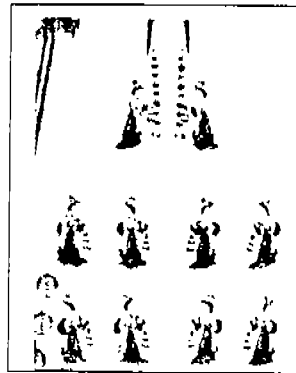
〈圖 7〉 正祖 乙卯, 壽延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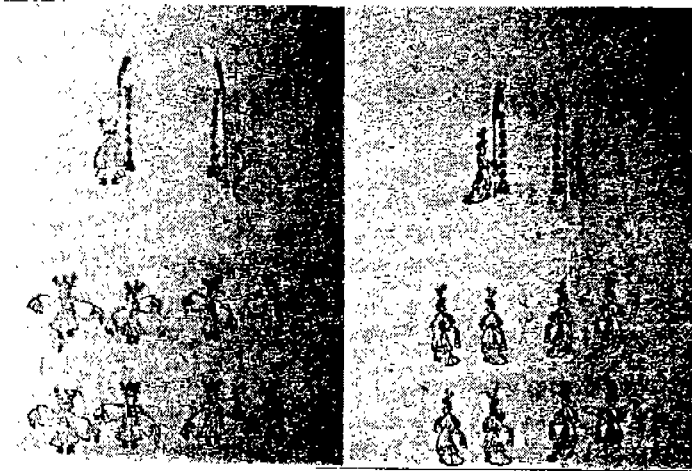
〈圖 8〉 純祖 戊子, 壽延長



〈圖 9〉 純祖 己丑, 壽延長



〈圖 10〉 光武 辛丑, 壽延長



〈圖 11〉 光武 壬寅, 壽延長

상·수대·오색한삼을 입고 있다.

〈圖 8〉은 순조28년 수연장으로 무동이 추고 있다.

純祖 戊子 「進爵儀軌」¹⁸⁾과 같다.

〈圖 9〉는 순조29년 수연장으로 맨 앞 2인의 여령은 죽간자를 들고, 아래는 8인의 여령이 춤을 추고 있다.

〈圖 10〉은 연세대학교 소장의 광무5년 수연장으로 춤의 배치는 〈圖 9〉와 같다. 여령들의 복식은 상의는 초록색 저고리 위에 황초삼을 입고, 하의는 길이가 긴 남색상 위에 길이가 짧은 홍초삼을 입고, 홍수대를 띠고, 머리에는 화관을 쓰고 있다.

〈圖 11〉은 광무6년 수연장으로 외연에는 무동이, 내연에는 여령이 추고 있는데 춤의 배치는 〈圖 10〉과 같다.

수연장服飾을 시대별로 나타내면 〈表-2〉와 같다.

〈表-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수연장의 여령 복식이 흑장삼이었던 것이 정조 19년 부터는 황초삼으로 바뀌고 광무6년에는 녹초단의로 되는 색의 변화가 있었다. 黻은 상의가 변화가 많았던 것에 비해 홍초삼을 변함없이 착용하였다. 黻은 음양의 의미를 두어 안은 남색, 겉은 홍색으로 음양의 조화를 이루었다. 띠도 수를 화려하게 놓아 춤의 화미함을 더하였다. 관도 화관이고 신은 혜를 신었다.

무동복식은 순조28년에 홍라포·남질흑선상을 착용하였다. 광무 5년에는 녹초삼을 입고 관은 부용관을 쓰던 것을 광무 5년에는 화관을 썼다.

〈表-2〉 壽延長服飾의 時代的 變遷

	출처	상의	하의	대	관	신	기타
女妓	「高麗史」	黑長衫		紅帶			*헌천화와 동일
舞童	「樂學軌範」	衣, 中單		帶는 회례연 때만 착용	芙蓉冠		
女妓	"	藍赤古裡, 丹衣, 黑長衫	襪裙, 裳	帶, 帶腰		靴兒	篋, 流蘇, 釵, 首花
女妓	*純祖19년 (1796년, 을묘) 「園幸乙卯整理儀軌」	黃納衫	紅納裳	繡帶	花冠 (35인)		童妓: 새앙머리(2인) 아박(3인)
舞童	純祖28년 (1828, 무자) 「進爵儀軌」	紅羅袍 白質黑線中單衣	藍質黑線裳	也帶	芙蓉冠	黑靴	五色汗衫
女伶	純祖29년 (1829, 기축) 「進爵儀軌」	黃納單衫	裏藍色裳 表紅納裳	紅緞金縷繡帶	花冠	草綠鞋	
女伶	*光武5년 (1901, 신축) <연세대학박물관>	黃納衫	紅納裳	紅緞金縷繡帶	花冠		五色汗衫
女伶	光武6년 (1902년, 임인) 「進爵儀軌」	綠納單衫					

18) 純祖 戊子 「進爵儀軌」 卷2 女伶條.

廣袖舞童載芙蓉花冠着綠圓領紅質藍線裳白質黑線中單衣豆錫綠呈帶畫花黑靴子牙拍舞童着黑圓領紅質藍線中單裳響鈸舞童着藍圓領紅質藍線裳初舞舞童着紅圓領藍質紅線裳冠帶靴子中單衣拉與廣袖舞童尖袖舞童載皮弁着綠紋半臂衣藍纏帶青履紫行纏壽延長舞童二着響鈸舞服飾一着廣袖舞服飾一着牙拍舞服飾拋毬樂時則諸舞童具服飾並進獨尖袖舞服飾不入舞童二十名分二隊大殿進爵時左隊呈才中宮殿進爵時右隊呈才



〈圖 12〉 正祖 乙卯, 抛毬樂

3) 抛毬樂

포구락은 中國 宋의 女弟子 隊舞 10가지 중에 한 가지로서¹⁹⁾ 高麗 文宗 27年(1093) 11월에 宋으로부터 전래한 교방 여제자 楚英이란 女伶이 13명의 무원을 구성하여 처음 연희한 唐樂 毬才에 속하는 춤으로 구장기별기와 함께 上演하였다는 내용인데²⁰⁾, 抛毬門 위에 뚫린 풍류안(포구를 위에 뚫린 구멍)에 공을 던져 넣는 것을 겨루는 재미있는 놀이의 춤으로, 공을 넣으면 꽃을 價으로 주고 넣지 못하면 벌로 얼굴에 먹점을 찍는 춤이다.

〈圖 12〉는 정조19년의 포구락으로 포구문을 2개 두고서, 맨앞에는 죽간자를 든 2인의 여령이 1인이 있으며, 양옆에는 2인의 여령이 아박을 들고 있고, 2개의 포구문 옆에는 4인의 여령이 포구문에 彩絙을 던지거나 잡고 있으며, 그 아래에는 여령과 동기가 춤을 추고 있는데, 여령들의 복식은 화관·홍초상·황초삼·수대이며, 동기의 복식은 새앙머리·단의·홍초상이다.

〈圖 13〉은 순조28년의 포구락으로 포구문 옆에 2



〈圖 13〉 純祖 戊子, 抛毬樂

인의 무동은 채구를 던지고 있으며, 그 아래에는 4인의 무동이 춤을 추고 있다. 무동의 복식은 純祖 戊子 「進爵儀軌」卷3 工伶條에 “포구락복식은 아박무복식과 같아 흑단령·홍질남선상·백질흑선중단의·두석늑정대·부용화관·화화흑화자”²¹⁾를 신었다. 또 卷附編 工伶條에는 “研光帽·紅羅袍·白質藍線中單衣·藍質黑線裳·綠汗衫·鶴頂帶·黑靴”²²⁾이다.

〈圖 14〉는 순조29년의 포구락으로 맨 앞에는 죽간자를 든 2인의 여령이 죽간자를 들고 있고, 포구문 양 옆에는 2인의 여령이 채구를 던지고 있고, 1인은 손에 筆을 들고 있는데 이것은 채구를 넣지 못하는 여령에게는 얼굴에 먹점을 그리기 위해서다.²³⁾ 그 아래에는 6인의 여령이 춤을 추고 있다. 〈圖 15〉는 광무5년 포구락으로 맨 앞에는 2인의 여령이 이

19) 「宋史」卷15, 女弟子隊舞條.

宋時女子隊舞有抛毬樂隊

20) 「宋史」樂志, 卷142, 樂志六, 中華書局聚.

“女弟子隊凡一百五十三人,一曰菩薩隊衣緋生色窄凝衣冠卷雲冠…三曰抛毬樂隊衣四色繡羅寬衫繫銀帶奉繡球.”

21) 純祖 戊子 「進爵儀軌」卷3 工伶條.

抛毬樂時則諸舞童具服飾竝進

22) 純祖 戊子 「進爵儀軌」附編 工伶條.

舞鼓響鉦牙拍抛毬樂舞童研光帽着紅羅袍白質藍線中單衣藍質黑線裳繫綠汗衫鶴頂帶黑靴

23) 純祖 己丑 「進爵儀軌」卷1 樂章條.

女妓二人奉竹竿子前進相向一人奉筆立於毬門之東入八分四隊前隊二人各執彩絙舞而仰拋中隊後隊隨前隊舞退次次進舞



〈圖 14〉純祖 己丑, 抛毬樂

전 보다 더 화려해진 죽간자를 들고 있으며, 포구문 앞에는 2인의 여령이 채구를 던지며, 그 위쪽의 여령 중 좌측의 여령은 손에 箏을 들고 있고 우측 여인은 꽃을 들고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는 먹점을 상으로는 꽃을 주기 위함이다. 그 아래에는 10인의 여령이 춤을 추고 있다. 여령의 복식은 상의는 초록색 저고리 위에 소매가 짧은 홍초삼을 입고, 하의는 길이가 긴 남색상 위에 앞단 가리는 홍초상을 입고, 홍수대를 띠고, 오색한삼을 하였다.

〈圖 16〉는 광무6년 포구락으로 외연에는 무동이 추



〈圖 15〉光武 辛丑, 抛毬樂

었는데, 춤의 배치는 〈圖 14〉와 같다. 내연에서는 여령이 추었는데 포구문을 두개를 두고 추는 쌍포구락이다. 맨 앞에는 2인의 여령이 죽간자를 들고 있으며 아래 여령들의 춤을 추고 있다.

抛毬樂 服飾을 시대별로 나타내면 〈表-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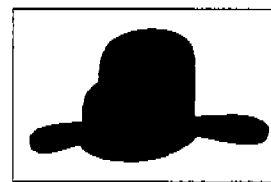
〈圖 16〉光武 三頁, 抛毬樂

<表-3> 抛毬樂服飾의 時代的 變遷

	출처	상 의	하 의	대	관	신	기 타	
女伶	「高麗史」						妓黑衫紅帶	
	「樂學軌範」							
女妓	*正祖19年(1795,음묘) 「園幸乙卯整理儀軌」	黃納衫	紅納裳	襦帶	花冠(33인) 쌍계(2인)		五色汗衫,공(1), 포구대(1)	
舞童	純祖28年 (1828,무자) 「進饌儀軌」	卷附編,工 伶條	紅羅袍, 白質黑線 中單衣	藍質黑線裳	鶴頂帶	牙光帽	黑靴	綠汗衫 ★舞鼓,향발, 牙拍도 동일
		卷3, 工伶條	黑團領, 白質黑線中 單衣	紅質藍線裳	豆錫綠帛帶	芙蓉花冠	齒花黑 靴了	
女伶	*純祖29年(1829,기축) 「進饌儀軌」	黃納衫	紅納裳	紅緞金縷縹 帶	花冠	草綠鞋	五色汗衫	
女伶 (1848)	*憲宗14年(1848,무신) 「進饌儀軌」	黃納衫	"	"	"	"		
女伶 (1887)	*高宗24年(1887,정해) 「進饌儀軌」	黃納衫	"	"	"	"		
女伶	*光武5年(1901,신축) <연세대박물관>	"	"	"	"	"		
女伶	*光武6年(1902,임인) 「進宴儀軌」	綠納單衫						
舞童	"							

이상의 것으로 보면 抛毬樂의 服飾이 변천된 것은 거의 없었으나, 순조 28년에는 여령 대신 무등이 추었던 까닭에 복식의 변천이 크게 나타났다. 즉 황초삼 대신에 홍라포에 남질혹선상을 하고, 수대 대신에 화정대를 하고 화관을 쓰던 것이 硯光帽로 변화되었다. 한삼도 여령들이 오색 한삼을 했던 것을 녹한삼으로 하였다.

특히 硯光帽(圖 17)의 제도는 사모처럼 만들었는데 단지 뒷부분이 높고 양쪽 각이 홀으로 되어 있으며 뒤통정면에 비단으로서 선을 댔는데 寶相舞·響鈴舞·影池舞·春光好·春鶯轉·催花舞·佳人剪牧丹의 무등들도 이 아광모를 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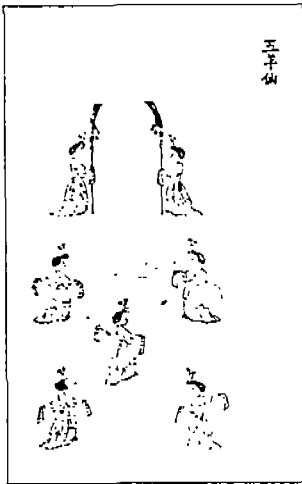


<圖 17> 「리조복식도감」, 硯光帽

五羊仙은 「高麗史」樂志에 전하는 唐樂呈才로 고려시대 恭愍王16년(1367)에 宋나라에서 전래된 것으로 獻仙桃·壽延長·抛毬樂 등과 더불어 대곡에 속하며 그 형태는 대개 가무희 형태다. 이 대곡은 모두 君王을 축수하는 내용이다.

五羊仙에는 다음과 같은 傳說이 있다. “고고가 중국 楚나라 재상으로 있을 때 다섯사람의 神仙이 五

4) 五羊仙



〈圖 18〉 純祖 己丑, 五羊仙



〈圖 19〉 高宗 丁亥, 五羊仙

색의 양을 타고, 한 줄기에 여섯개의 이삭이 달린 수수, 즉 六穗炬를 가지고 나타나서, 孝誠이 지극한 백성에게 주었다.”²⁴⁾

〈圖 18〉은 순조 29년 오양선으로 앞에 2인의 여령은 죽간자를 들고 있으며, 아래에는 5인의 여령이 춤을 추고 있다.

〈圖 19〉는 고종24년 오양선으로 춤의 배치는 〈圖 18〉과 같고 죽간자의 모양이 화려해진 것을 볼 수 있다.

五羊仙服飾을 시대별로 표로 나타낸 것이 〈表-4〉와 같다.

〈表-4〉에 나타나 있듯이 오양선이 행해진 자료가 적어 전체적인 변화는 살펴 볼 수 없으나, 가장 일반적인 복식으로 순조 때나 고종 때의 기록에 의하면 복식의 변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蓮花臺舞

高麗時代에 宋으로부터 들어온 唐樂로才의 하나로, 군왕을 축수하는 내용이다.

蓮花臺舞는 본래 석지에서 나온 춤이라 하여 中國에서는 石枝舞라고도 하였다.²⁵⁾

石枝舞는 서역의 한 나라에서 唐나라 현종때 중

〈表-4〉五羊仙 服飾의 時代的 變遷

	출처	상의	하의	대	관	신	기타
	「高麗史」						妓黑衫紅帶
女妓	*純祖29년 (1829,기축) 「進饌儀軌」	黃紵衫	紅紵裳	縹帶	花冠	草綠鞋	
女妓	*高宗 24년 (1887,정해) 「進饌儀軌」	"	"	"	"	"	

24) 「太平環宇記」 (고대 중국의 신화를 담은 책), 卷15, 廣州條
→ 張師勛, 「韓國傳統舞蹈研究」, p.109.

25) 歐陽子青, 「中國舞蹈史」, 蘭亭書局, 中華民國 74年, p.146.

국으로 전해졌다. 당대에 이어 宋代에 와서도 유행했으며, 고려 때의 蓮花臺舞는 이 石枝舞의 한 부분이 전해진 것이다.²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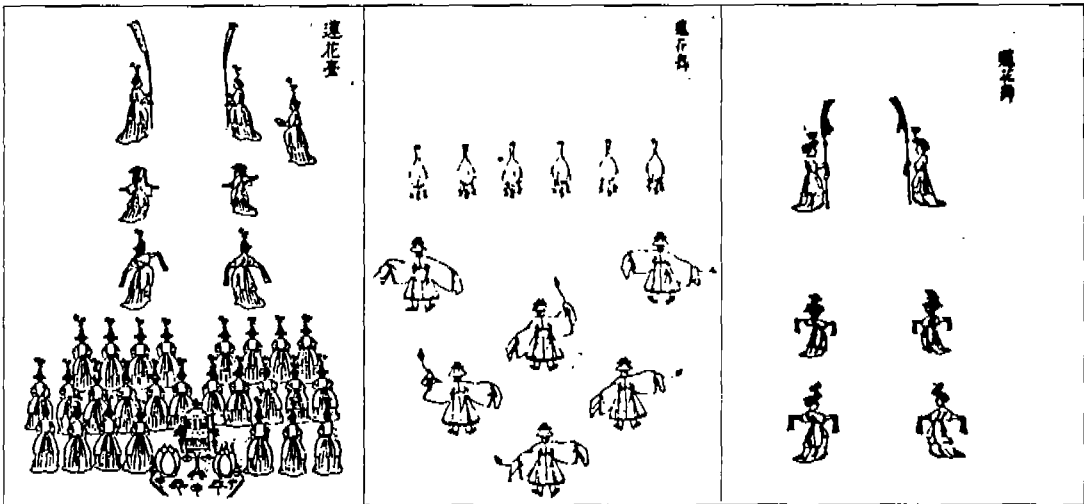
「高麗史」樂志 후주에 보면 蓮花臺舞는 본래 석밭에서 나왔다. 두 여동이 衣服과 모자를 조촐하게 차리는데, 모자에는 쇠방울을 달아 長短에 맞춰 움직이면 소리가 나게 된다. 그들은 두 연꽃속에 숨어 있다 꽃이 터진 후에 나타난다.²⁷⁾ 라는 기록이 있으나 고려시대에는 연화대무에 대한 복식은 전혀 알 수 없다.

조선시대 연화대무의 복식을 살펴보면 <圖 20>은 정조19년 연화대로 맨 앞에는 2인의 여령이 죽간자를 들고 있으며, 그 옆에는 1인의 여령이 아박을 들고 있고, 그 아래에는 연꽃에서 나온 2인의 동기가 머리에 합림을 쓰고 단의를 입고 있으며, 맨 아래에는 28인의 여령이 춤을 추고 있다. 여령들

의 복식은 화관·홍초삼·홍초상·수대·오색한삼을 입고, 동기는 합림·홍초상·단의를 입고 있다.

<圖 21>은 순조28년 연화무로 6개의 연화병을 앞에 두고 아래에는 6인의 무동이 손에 꽃 한가지씩을 들고 춤을 추고 있다. 純祖 戊子 「進爵儀軌」卷附編에 연화무동은 “蓮花蛤笠·金珠帽·綠羅袍·白質黑線中單衣·紅質藍線裳·鶴頂帶·飛頭履”²⁸⁾를 입었다고 했다.

<圖 22>은 순조29년 연화무로 앞에는 2인의 여령이 죽간자를 들고 있고, 아래에는 2인의 동기가 있으며, 그 아래에는 2인의 여령이 춤을 추고 있다. 純祖 己丑 「進鑾儀軌」卷3 工伶條에 “蓮花臺呈才童妓는 金鈴을 단 蛤笠에 流蘇를 하고 黃紅薔薇花를 장식하였으며, 상의는 草綠丹衣를 입고 하의는 紅綉襪裙·紅羅裳을 입고 金花紅羅帶를 띠고 白汗衫을 매었으며 眞紅緞鞋를 신었다.”²⁹⁾라고 했다.



<圖 20> 正祖 乙卯, 蓮花臺

<圖 21> 純祖 戊子, 蓮花舞

<圖 22> 純祖 己丑, 蓮花臺

26) 張師勛, 「韓國舞蹈概論」, 大光文化社, p.163.

27) 「高麗史」卷71 樂志.

“蓮花臺本出於拓跋魏用二女童鮮衣瑠瑯也金鈴翻轉有聲其來也於二蓮花中藏之花垢而後見舞中之雅妙者其傳久矣.”

28) 純祖 戊子 「進爵儀軌」, 卷附編 工伶條.

蓮花舞童載蓮花蛤笠金珠帽着綠羅袍白質黑線中單衣紅質藍線裳鶴頂帶飛頭履

29) 純祖 己丑 「進鑾儀軌」卷3 工伶條.

蓮花臺呈才童妓載蛤笠縣金鈴垂流蘇插黃紅薔薇花草綠丹衣紅綉襪裙紅羅裳金花紅羅帶繫白汗衫眞紅緞鞋

高宗 丁丑 「進饌儀軌」卷3 工伶條에 “蓮花臺呈才童妓는 蛤笠에 金鈴을 달고 流蘇를 늘어뜨리며 黃紅薔薇花를 꽃고, 草綠丹衣·紅絹襪裙·紅羅裳·金花紅羅帶·를 띠고 玉色汗衫을 매고 眞紅緞鞋를 신었다.”³⁰⁾

〈圖 23〉은 고종24년 여령이 추는 연화대무로 춤의 배치는 〈圖 22〉와 같으며, 고종 정해 「進饌儀軌」卷首 圖式에 연화대동기 복식이 있다(圖 25 참조).

高宗 壬辰 「進饌儀軌」卷3 工伶條에 “蓮花臺舞呈才의 童妓는 蛤笠에 銅鈴·流蘇·黃紅薔薇花를 꽃고 草綠丹衣·紅絹襪裙·紅羅裳·金花紅羅帶·玉色汗衫·眞紅緞鞋를 신었다”³¹⁾라고 있고, 卷3 樂器風物條에는 “蓮花臺舞童妓는 蓮花冠(首拱花를 2가지 꽃고 銀鍍金花簪을 함)을 쓰고, 紅貢緞繡鞋를 신고, 丹衣(길감은 草綠花紋甲紗, 안감은 黃生絹로 하고, 領은 紅花紋甲紗로 하며, 左右겨드랑이와 袖口의 色同은 紅花紋甲紗·白花紋甲紗로 한다)·裳(紅

花紋甲紗로 하고, 上端은 草綠花紋甲紗로 하며, 垂纓은 紅花紋甲紗·草綠花紋甲紗로 하며, 腰纓은 紅花紋甲紗로 함)·襪裙(紅禾紬로 하고, 腰纓은 白禾紬로 함)·繡帶(紅貢緞으로 하고, 纓子는 紅貢緞으로 하며, 金花紋의 金箔을 찍음)를 띠고, 流蘇(紅貢緞으로 하고, 腰纓은 紅禾紬로 하고, 金花紋의 金箔을 찍음)를 드리웠다.”³²⁾라고 있다.

光武 辛丑 「進饌儀軌」와 「進宴儀軌」의 卷3 工伶條에 “蓮花臺舞呈才童妓는 蓮花冠·草綠丹衣·紅絹襪裙·紅羅裳·金花紅羅帶·玉色汗衫·眞紅緞鞋를 신었다.”³³⁾라 했다.

〈圖 24〉는 광무6년 내연에서만 행해진 연화대무로 여령이 추는데 춤의 배치는 〈圖 22〉와 같다. 光武 壬寅 「進宴儀軌」卷3 工伶條에 “蓮花臺舞呈才童妓는 蓮花冠을 쓰고 상의는 草綠丹衣를 입고, 하의는 紅絹襪裙·紅羅裳을 입고 金花紅羅帶를 띠고 玉色汗衫을 끼며 眞紅緞鞋를 신었다.”³⁴⁾라고 있어 등기는 순조 기축과는 달리 합림을 쓴 것이 아니라,



〈圖 23〉 高宗 丁亥, 蓮花臺舞



〈圖 24〉 光武 壬寅, 蓮花臺舞

30) 高宗 丁丑 「進饌儀軌」,卷3 工伶條.

蓮花臺呈才童妓載蛤笠縣金鈴垂流蘇插黃紅薔薇花草綠丹衣紅絹襪裙紅羅裳金花紅羅帶繫玉色汗衫眞紅緞鞋

31) 高宗 壬辰 「進饌儀軌」,卷3 工伶條.

“蓮花臺舞呈才童妓載蛤笠懸銅鈴垂流蘇插黃紅薔薇花着草綠丹衣紅絹襪裙紅羅裳金花紅羅帶繫玉色汗衫眞紅緞鞋”

<表-5> 蓮花臺舞服飾의 時代的 變遷

	출처		상 의	하 의	대	관	신	기 타
	「高麗史」	樂志						당악정재 : 妓黑衫紅帶
女伶	「樂學軌範」 (1493)	卷8, 蓮花臺 服飾圖 說條	丹衣	裳襪裙	帶	蛤笠		流蘇, 結紳.
童妓	* 正祖19年(1795, 을묘) 「園季乙卯整理儀軌」		丹衣 (붉은색)	紅納裳	繡帶	蛤笠(2)		동기(2인: 합립) 여령(31인: 화관)
舞童	純祖28年 (1828, 무자) 「進饌儀軌」	卷附編, 工伶條	綠羅袍, 山質黑線 中單衣	紅質藍線裳	鶴頂帶	蓮花蛤笠, 金珠帽	飛頭履	
童妓	純祖29年 (1829, 기축) 「進饌儀軌」	卷3, 工伶條	草綠丹衣	紅羅裳, 紅納襪裙	金花紅繡帶	蛤笠(銅鈴, 流蘇를 느리고 黃紅薔薇를 꽃는다.)	眞紅緞鞋	白汗衫
童妓	高宗14年 (1877, 정축) 「進饌儀軌」	卷3, 工伶條	草綠丹衣	"	"	"	眞紅緞鞋	玉色汗衫
童妓	高宗24年 (1887, 정해) 「進饌儀軌」	卷首, 圖式	丹衣	紅羅裳, 紅納襪裙	金花繡帶	蛤笠	眞紅緞鞋	流蘇, 玉色汗衫
童妓	高宗29年 (1892, 임진) 「進饌儀軌」	卷3, 工伶條	草綠丹衣	紅羅裳, 紅納襪裙	金花紅繡帶	蛤笠(銅鈴, 流蘇를 느리고 黃紅薔薇를 꽃는다.)	眞紅緞鞋	玉色汗衫
童妓	光武5年 (1901, 신축) 「進饌儀軌」 「進宴儀軌」	卷3, 工伶條	"	"	"	蓮花冠	"	"
童妓	光武6年 (1902, 임인) 「進宴儀軌」	"	"	"	"	"	"	"

32) 上揭書. 卷3 樂器風物條.

“蓮花臺舞童妓所著服飾二件所入蓮花冠二件換只二件(銀蛙簪具)唐只四件次(紫的禾袖一尺五寸)花冠二件首拱花四枝銀鍍金花簪二箇筭簪四件紅貢緞繡鞋二部(以上貿用)丹衣二件次(外拱草綠花紋甲紗內拱黃生丞各九尺領次紅花紋甲紗兩尺左右挾及袖口色同次紅花紋甲紗白花紋甲紗各兩尺三寸貿用)裳二件次(紅花紋甲紗四尺五寸上端次草綠花紋甲紗半骨長兩尺二寸五分垂纓次紅花紋甲紗草綠紋甲紗各六片長一尺五寸廣四寸腰纓次紅花紋甲紗三尺金花紋次金簪二束貿用)襪裙二件次(紅禾袖十六尺腰纓次白禾袖三尺一寸貿用)繡帶二件次(紅貢緞二片各長四尺廣四寸褻子次紅貢緞八片各長五寸廣五分金花紋次金箔六貼貿用)流蘇二件次(每件紅貢緞八錢通長十六尺 八寸每條長兩尺一寸廣五分腰纓次紅禾袖一尺金花紋次金箔一束六貼貿用)”

33) 光武 辛丑 「進饌儀軌」· 「進宴儀軌」, 卷3 工伶條.

“蓮花臺舞呈才童妓戴蓮花冠着草綠丹衣紅納襪裙紅羅裳金花紅羅帶繫玉色汗衫眞紅緞鞋”

34) 光武 壬寅 「進宴儀軌」卷3 樂器風物條.

“蓮花臺童妓所著服飾二件所入丹衣二件次(外拱草綠生絹九尺內拱紅生絹九尺領次紅生絹一尺八寸袖口色同次紅生絹一尺八寸白生絹一尺八寸)裳二件次(紅生絹四尺五寸草綠生絹一尺九寸垂纓次紅生絹草綠生絹各六片每片長一尺五寸廣四寸腰纓次紅生絹三尺)襪裙二件次(紅生絹二十尺腰纓次白生絹三尺五寸)繡帶二件次(紅貢緞二片各長六尺廣四寸金箔一束二貼)花簪二箇繡鞋二部蓮花冠二件(以上升貿用)裏衣(黃木十兩尺)”

연화관을 쓰고 백색한삼이 아닌 옥색한삼을 낀 것으로 변화되었다. 또 卷3 樂器風物條에 “蓮花臺童妓의 服飾은 上衣는 丹衣(겉감은 草綠生絹, 안감은 紅生絹로 하고, 領은 紅生絹로 하고, 袖口의 色同은 紅生絹·白生絹로 함)를 입고, 下衣는 裳(紅生絹로 하고, 上端은 草綠生絹로 하고, 垂纓은 紅生絹·草綠生絹로 하며, 腰纓은 紅生絹로 함)·襪裙(紅生絹로 하고 腰纓은 白生絹로 함)를 입고, 繡帶(紅貢緞으로 하고, 金箔을 적음)를 띠고, 繡鞋를 신고, 蓮花冠을 썼다.”³⁵⁾라고 있다.

연화대무복식을 시대별로 나타낸 것이 <表-5>에 나타나 있다.

<表-5>에서 본 바와 같이 동기의 복식은 단의로 「樂學軌範」과 정조19년에는에는 홍사로 만들었으나, 순조29년부터 광무 6년까지 동기는 초록단의의를 입어서 커다란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에 비해 하의는 홍색으로 변화가 없었다. 동기의 합림은 광무5년과 6년에는 연화관으로 바뀌었다. 무등은 순조때만 행하였고 복식은 <表-10>에서 보는 바와 같다. 동기의 한삼의 색은 순조 기축년 이외는 모두 옥색한삼을 사용하였다.

연화대무의 童妓服飾의 형태별 구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³⁶⁾ <그림: 리조복식도감 참고>

(1) 蛤笠

蛤笠은 「樂學軌範」에 의하면 가는 대로 망을 만들고 종이를 바르고 걸을 남초로 쓴다. 또 홍초로 정자를 만들고 정자 밑에 홍초, 남초로 화통을 마름

질 하여 붙인다. 4면의 梁과 테두리도 홍초로 붙이고, 모두 금화문을 박는다. 안에는 홍초를 바르며, 좌우에 금방울을 달고, 안에 홍초로 만든 끈을 달고 모두 금화문을 찍는다고 있는데 합림은 정자위에 화통이 달렸다.

합림 위에는 黃紅薔薇를 장식하였는데 황장미, 홍장미는 편 거위의 깃에 녹밀을 달여 몰들여서, 바퀴살처럼 꽃잎을 만들어 둘러 붙이는데 모두 안으로 굽게한다. 위에는 羅로 만든 꽃을 엮는데 하는 황색



<童妓蛤笠과 蛤笠, 蓮花蛤笠>

이고, 하나는 홍색이다.

합림은 연화대 동기 이외 高宗 14년과 高宗24년에는 蓮花臺舞童이 썼고, 船遊樂동기도 純祖29년에만 썼다. 합림의 재료는 光武 壬寅年 「進宴儀軌」에 보이는데, 겉감은 남색생초, 안감은 홍색생초이고, 정자는 홍색생초로 하고, 정자 밑에 홍색·남색생초로 화통을 마름질하여 붙인다³⁷⁾고 했다.

순조28년 무동이 쓴 연화합림은 일반합림과 형태가 다르다. 즉 모자의 梁은 연잎을 모방하고 모자위에 연꽃을 엮었으며 정수리는 연밥을 본떠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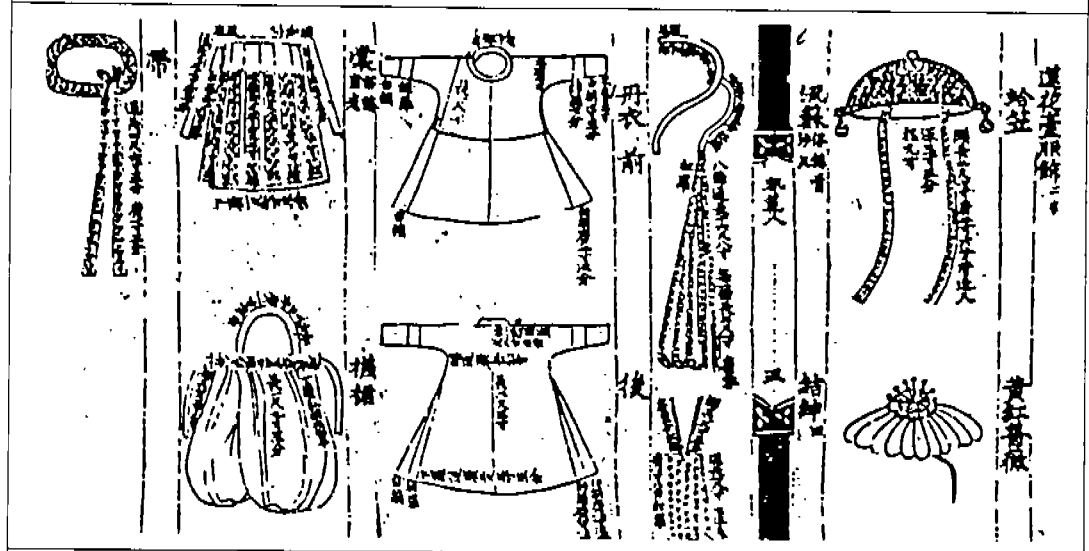
35) 光武 壬寅 「進宴儀軌」卷3 樂器風物條.

“蓮花臺童妓所着服飾二件所入丹衣二件次(外拱草綠生絹九尺內拱紅生絹九尺領次紅生絹一尺八寸袖口色同次紅生絹一尺八寸白生絹一尺八寸)裳二件次(紅生絹四尺五寸草綠生絹一尺九寸垂纓次紅生絹草綠生絹各六片每片長一尺五寸廣四寸腰纓次紅生絹三尺)襪裙二件次(紅生絹二十尺腰纓次白生絹三尺五寸)繡帶二件次(紅貢緞二片各長六尺廣四寸金箔一東二貼)花簪二箇繡鞋二部蓮花冠二件(以上升賢用)裏衣(黃木十兩尺)”

36) 「樂學軌範」,卷9 冠服圖說條.

蓮花臺服飾: 蛤笠以細竹網造塗紙外裏藍絹又用紅絹頂子頂子下以紅藍絹裁成花筒府之四面梁及邊兒亦用紅絹府之並印金花紋內塗紅絹左右懸金鈴內懸紅絹纓子亦印金花紋○黃紅薔薇以白唐雁翼羽前梁錄蠶爲英如輪矢并內屈上施羅花-黃一紅○流蘇及結紳以紅羅爲之印金花紋纓用紅絹○丹衣用紅羅前短後長兩腋及袖端補以錄羅白約○裳以紅羅爲之外垂紅錄羅流蘇印金花紋上端以錄羅蓮補腰及襖用紅絹○襪君以紅絹爲之○帶以紅羅爲之印金花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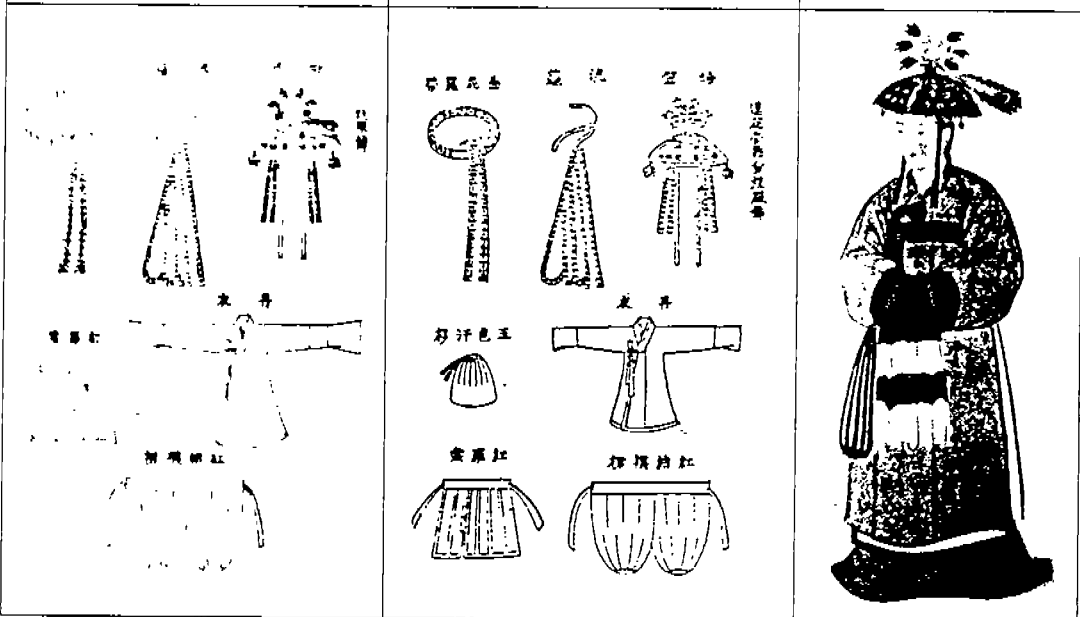
「樂學軌範」，蓮花臺舞服飾



純祖 己丑，童妓服飾

高宗 丁亥，蓮花臺舞童妓服飾

「리조복식도감」，丹衣



〈圖 25〉 蓮花臺舞童妓服飾

금주모는 꽃술의 종아리를 길게하여 운두를 높게 하고, 꽃술을 모아 정수리를 만든 후 양옆에 금화를 박는다.

(2) 丹衣

단의는 「樂學軌範」에 의하면 홍라로 만드는데 앞이 짧고 뒤가 길며, 좌우부와 소매끝에는 녹라·백초를 단다고 되어 있다. 純祖 己丑 「進饌儀軌」에는 초록단의, 憲宗 戊申 「進饌儀軌」에는 “겉감은 초록화문갑사, 안감 황생초, 단령은 홍화문갑사로 하였고, 좌우 겨드랑이와 소매의 색등은 홍화문갑사와 백화문갑사³⁷⁾로, 高宗 光武 6년에는 “겉감은 초록생초, 안감은 홍생초, 색등은 홍생초와 백생초³⁸⁾로 했다는 기록으로 보아, 동기의 단의의 색은 홍색에서 초록으로 바뀌었다.

丹衣의 형태는 「樂學軌範」에서는 圓領이던 것이 純祖 29년과 高宗 24년에는 직령으로서 동정과 고름이 달려 있으며, 소매끝에는 한삼이 달려 있고, 앞뒤의 길이가 같은 형태였으나, 憲宗 14년·고종 14년·광무 5년 등의 것에는 모두 단령이고, 소매끝에는 한삼이 없으며, 홍백색의 색동이 수구와 겨드랑이에 붙어 있고, 앞이 짧고 뒤가 긴 형태이다.

(3) 紅羅裳·紅綉襪裙

裳은 「樂學軌範」에 속칭 甫老라고도 했는데, 홍라로 만든다. 바깥에는 금화문을 박은 홍라, 녹라의 유소를 드리우고 홍초로 만든다.

홍라상의 재료는 憲宗 戊申 「進饌儀軌」에는 “홍화문갑사를 썼고, 상의 상단은 초록화문갑사, 垂纓

은 홍화문갑사와 초록문갑사를 썼고, 금화문의 금박을 찍었다.” 光武 壬寅 「進宴儀軌」에는 홍생초를 썼고, 상의 상단은 초록생초로 하였으며 허리 끈은 홍생초로 하였다. 裳아래에는 紅綉襪裙을 입었다. 襪裙의 재료는 「樂學軌範」에는 紅綉를 쓰고, 高宗 丁亥에는 紅紬를 썼다.

(4) 金花羅帶

帶는 단의 위에 맨 띠로 「樂學軌範」에는 紅羅로 만들었고 금화문을 박았다.

光武 壬寅年 「進宴儀軌」에는 홍공단으로 만들며, 금화문의 금박을 찍고 홍공단으로 만든 영자를 달았다.

(5) 鞋

신목이 짧은 혜를 신었는데, 무동의 신은 비두리로 순조 무자 「進爵儀軌」卷3 樂器風物條에 “홍공단”으로 하였고, 童妓의 신은 진홍단혜다.

(6) 流蔬와 結紳

유소와 결신은 홍라로 만들고 금화문을 박으며, 끈은 홍초로 만든다.

연화대무는 불교가 중시되던 고려시대에 도입된 정재로 복식에 연꽃을 장식하여 춤을 춘 것이다. 불교에서의 연화는 더러운 진흙에서 피어나도 꽃잎이 더럽게 물들지 아니하고 항상 깨끗하며, 또 연꽃에는 필 때 부터 연발이 생기고, 다른 꽃에 비해서 수명이 길다는 특성을 가진 상징적인 꽃이다.

2) 鄉樂呈才 服飾⁴⁰⁾

37) 光武 壬寅年 「進宴儀軌」, 卷3 樂器風物條.

“蓮花臺舞童妓所着服飾二件所入丹衣二件次(外拱草綠生納九尺內拱紅生納九尺領次紅生納一尺八寸袖口色同次紅生納一尺八寸白生納一尺八寸)裳二件次(紅生納四尺五寸草綠生納一尺九寸垂纓次紅生納草綠生納各六片每片長一尺五寸廣四寸)腰纓次紅生納三尺五寸襪裙二件次(紅生納二十尺腰纓次白生納三尺五寸)繡帶二件次(紅黃緞二片各長六尺廣四寸金箔一束二貼)花簪二箇繡鞋二部蓮花冠二件.”

38) 憲宗 戊申 「進饌儀軌」, 卷3 樂器風物條.

丹衣二件(內拱黃生納九尺外拱草綠花紋甲紗九尺圓領次紅花紋甲紗二尺左右挾及袖口色同次紅花紋甲紗二尺三寸白花紋甲紗二尺三寸)

39) 光武 壬寅 「進宴儀軌」, 卷3 樂器風物條.

40) 「高麗史」, 卷71, 樂志, 俗樂呈才

(1) 舞鼓

무고는 고려 충렬왕(1274-1308)때 侍中 이공이 寧海에 귀양 갔을 때 바다 위에서 부사를 얻어 이로써 舞鼓를 만들었는데, 그 울리는 소리가 어찌나 크고 웅장하던지 이 북을 두드리면서 춤 춘데서 기원되었다고 한다.⁴¹⁾ 이 춤은 즐겁게 돌아가는 것으로, 한 쌍의 나비가 꽃을 감도는 것 같고, 두 마리의 용이 구슬을 두고 다투는 것 같아 악부에서는 가장 기묘한 것이다.

舞鼓는 高麗 이래로 鄉樂畧才의 백미였으며 다소의 변화는 있어도 조선조 말기까지 宮中의 각종 연회에 꼭 上演되었으며, 현재까지도 盛行하고 있으며 700년에 가까운 오랜 傳統을 가지고 있는 가장 귀중한 畧才 중의 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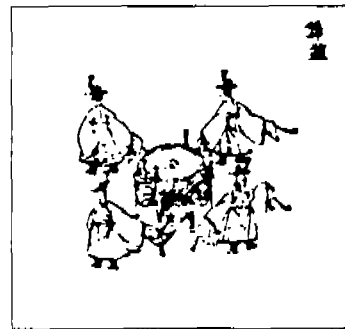


〈圖 26〉 正祖 乙卯, 舞鼓

무고의 복식을 문헌에 나타난 그림으로 살펴보면, 〈圖 26〉은 정조19년 무고로 위에는 8인의 여령이 춤을 추고 있고, 그 아래에는 8인의 여령이 2개의 북을 중심으로 춤을 추고 있으며, 그 외에 15인의 여령과 2인의 동기 모습이 보인다. 모든 여령의 복식은 화관·황초삼·홍초상·오색한삼을 입고, 동기는 새암머리·단의를 입고 있다.

〈圖 27〉은 순조28년 무고로, 위에는 4인의 무동이 북을 두드리며 춤을 추고 있으며, 아래에는 10인의 무동이 춤을 추고 있다. 純祖 戊子 「進爵儀軌」 卷3 工伶條에 “무고 무동은 芙蓉花冠·白質黑線中單衣·藍圍領·紅質藍線裳·豆錫綠眉帶·芙蓉花冠·畫花黑靴子를 신었다.”⁴²⁾고 했으며, 또 卷附編 工伶條에는 “무고 무동은 아광모를 쓰고 상의는 홍라포·백질남선중단의를 입고, 하의는 남질흑선상을 입고 녹한삼을 끼고 화정대를 띠고 흑화를 신었다.”⁴³⁾고 하여 춤을 추는 때와 장소에 따라 복색을 달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

〈圖 28〉은 순조29년 무고로 의면에서는 무동이 추는데 춤의 배치는 〈圖 27〉과 같다. 내면에서는 여령이 추는데 중앙에 북을 두고 4인의 여령이 북



〈圖 27〉 純祖 戊子, 舞鼓

41) 上揭書, 卷108, 列傳, 李冕條.

“舞鼓侍中李冕謫宦寧海乃得海上浮查制爲舞鼓其聲宏壯其舞變轉翩翩然雙蝶繞花矯然二龍爭珠最樂部之奇者也.”

42) 純祖 戊子 「進爵儀軌」 卷3 工伶條

舞鼓舞童着藍圍領紅質藍線裳…以上冠帶靴子中單衣並與廣袖舞同

43) 純祖 戊子 「進爵儀軌」 卷附編 工伶條

舞鼓舞童着藍圍領紅質藍線裳…以上冠帶靴子中單衣藍質黑線裳繫綠汗衫鶴頂帶黑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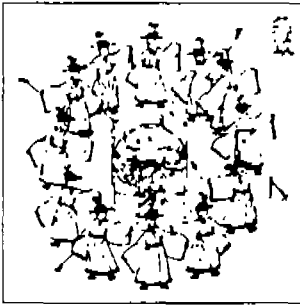
을 치며 춤을 추고, 밖에는 8인의 여령이 춤을 추고 있다. 純祖 己丑 「進饌儀軌」 卷3 工伶條에는 “무고무동은 남질홍선상·홍색단령·화화방보·부용관·두석늑정대·백질흑선중단의·화화흑화를 신었다.”⁴⁴⁾ 또 “舞鼓呈才女伶은 4명으로 머리에는 花冠을 쓰고 상의는 靑·赤·黑·草綠單衫을 입었고, 하의는 裏藍色裳表紅綃裳을 입고 紅緞金縷繡帶를 띠고 五彩汗衫을 끼며 草綠鞋를 신었다”⁴⁵⁾ 라고 있어 복을 추는 여령은 4방 색의 단삼을 입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卷附編 工伶條에는 “무고무동은 복두·남포·백질흑선중단의·홍야대·흑화”⁴⁶⁾를 신었다.

〈圖 29〉는 현종14년 무고로 중앙에 복을 두고, 8인의 여령이 춤을 추는 모습이다. 憲宗 戊申 「進饌儀軌」 卷3 工伶條에 “舞鼓呈才女伶은 일반여령과

같이 머리에는 화관을 쓰고, 상의는 황초단삼을 입고, 하의는 裏藍色裳表紅綃裳을 입고 홍단금루수대를 띠고 오색한삼을 하며 초록혜를 신었으나, 그 위에 靑·紅·黑·白快子를 입었다.”⁴⁷⁾라 하였다.

高宗 丁丑 「進饌儀軌」 卷3 工伶條에 “무고정재여령복색은 화관·황초단삼·이남색상표홍초상·홍단금루수대·오색한삼·초록혜에 靑·적·백·유록패자를 입었다.”⁴⁸⁾

高宗 壬辰 「進饌儀軌」 卷3 工伶條에 “무고정재여령은 화관·황초단삼·이남색상표홍초상·홍단금루수대·오색한삼·초록혜에 靑·적·백·유록패자를 입었다.”⁴⁹⁾ 卷3 樂器風物條에 “舞鼓의 服飾은 掛子(紅·藍·鴉青·玉色花紋甲紗로 함)를 입고, 戰帶(藍鱗紋甲紗로 하며, 길이는 八尺·넓이는 三寸五分임)를 했다.”⁵⁰⁾고 있다.



〈圖 28〉 純祖 己丑, 舞鼓



〈圖 29〉 憲宗 戊申, 舞鼓

44) 純祖 己丑 「進饌儀軌」, 卷3 工伶條.

舞鼓舞童着藍質紅線裳紅色圍領畫花方補…以上中單衣冠帶靴子並與初舞舞童同

45) 純祖 己丑 「進饌儀軌」, 卷3 工伶條.

舞鼓呈才女伶四名各戴花冠着靑赤黑草綠單衫裏藍色裳表紅綃裳紅緞金縷繡帶繫五彩汗衫草綠鞋

46) 純祖 己丑 「進饌儀軌」, 卷附編 工伶條.

舞鼓…舞童戴幪頭着藍袍白質黑線中單衣紅也帶黑靴

47) 憲宗 戊申 「進饌儀軌」, 卷3 工伶條.

舞鼓呈才女伶服色並同各舞呈才女伶而又各着靑紅黑白快子

48) 高宗 丁丑 「進饌儀軌」, 卷3 工伶條.

舞鼓呈才女伶服色並同各舞呈才女伶而又各着靑赤白柳綠掛子

49) 高宗 壬辰 「進饌儀軌」, 卷3 工伶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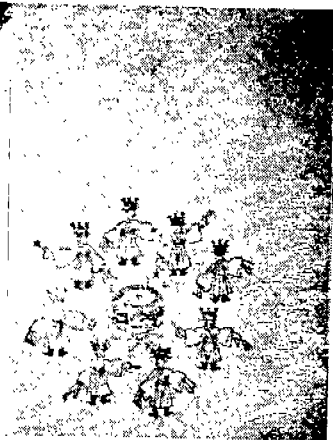
舞鼓呈才女伶服色並同各舞呈才女伶而又各着靑赤白柳綠掛子

50) 高宗 壬辰 「進饌儀軌」, 卷3 樂器風物條.

舞鼓差備所著服飾四件所入掛子四件次(紅藍鴉青玉色花紋甲紗各四尺五寸賢用)戰帶四件次(每件藍鱗紋甲紗長八尺廣三寸五分賢用)



〈圖 30〉 光武 辛丑, 舞鼓



〈圖 31〉 光武 壬寅, 舞鼓

〈圖 30〉은 연세대학교에 소장된 광무5년 무고로, 복을 중심으로 4인의 여령이 화관·황초삼·홍초상 위에 청·홍·흑·백 4방의 패자를 입고 춤을 추고 있으며, 바깥 여령은 화관·홍초삼·이남색상표홍초상·수대를 입고 있다. 光武 辛丑 「進饗儀軌」·「進宴儀軌」에 “무고정재여령은 화관·녹초단삼·이남색상표홍초상·홍단금루수대·오색한삼·초록혜에 청·적·백·유록패자를 입었다.”⁵¹⁾

〈圖 31〉은 광무6년의 무고로 외연에는 무동이, 내연에는 여령이 쌍무고를 추고 있다. 光武 壬寅 「進宴儀軌」卷3 工伶條에 “舞鼓呈才女伶服色은 화관·녹초단삼·이남색상표홍초상·홍단금루수대·오색한삼·초록혜에 청·적·백·유록패자를 입었다.”⁵²⁾ 또 卷3 樂器風物條에 “舞鼓의 服飾은 掛子(靑·紅·柳綠·白花紋甲紗를 입음)에 戰帶(藍鱗紋甲紗로 함)를 띠었다.”라고 있다.

舞鼓服飾을 시대별로 나타내면 <表-6>과 같다.

<表-6>에서 본 바와 같이 舞鼓服飾의 여령복식은 정조 19년에는는 황초삼이었으나, 순조 29년에는는 청·적·흑·초록단삼으로 변화되었고, 헌종 14년에는는 청·홍·흑·백의 사색 패자를 입었으며, 고종14년 부터는 청·적·백·유록패자로 변화되었으나 하의의 상은 모두 홍색으로 변화가 없다. 무동의 복식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복색이 다르다. 기본적인 형태는 단령·중단외·상·대·관·화를 신고 녹한삼을 끼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 舞鼓服飾은 색의 배합에 특징이 있어 上衣와 下衣의 色相이 반대되는 色을 사용하였고, 中單에 있어서 반드시 백색 바탕에 수구와 도련에 흑색 혹은 흑에 가까운 남색의 선을 둘러 陰陽의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직령 중단외와 단령포를 입어 天地 陰陽의 道를 겸비했음을 알 수 있다. 女伶服飾은 宮中女子舞蹈服의 基本服飾형식이 아닌 快子를 입는데⁵⁴⁾ 색상이 다양하여 청·홍·황·흑·백·자·녹·유록색 등으로 나

51) 光武 辛丑 「進饗儀軌」·「進宴儀軌」, 卷3 工伶條.

舞鼓呈才女伶服色竝同各舞呈才女伶而又各着靑赤白柳綠掛子

52) 光武 壬寅 「進宴儀軌」, 卷3 工伶條.

舞鼓呈才女伶服色竝同各舞呈才女伶而又各着靑赤白柳綠掛子

53) 光武 壬寅 「進宴儀軌」卷3 樂器風物條.

舞鼓差備所著服飾四件所入掛子四件次(靑紅柳綠白花紋甲紗四尺五寸紅銀條紗六尺五寸藍銀條紗半骨六尺五寸)戰帶四件次(藍鱗紋甲紗八尺)

〈丑-6〉 舞鼓服飾의 時代的 變遷

	출처		상의	하의	대	관	신	기타
	「高麗史」	樂志						舞隊조衫,樂官朱衣,妓丹粧
	「樂學軌範」							
	* 「韓國의 美」 英祖<平安監査歡迎圖>		황,녹,옥색저고리 황,자,녹색 快子	청홍색치마		없은머리 ,자색당기		백색한삼(한삼속으로 노란색복채를 들었으며, 복술은 홍색이다.) ★<圖27>참고
女妓	*正祖19년(1795,을묘) 「國幸乙卯整理儀軌」		黃納衫	紅納裳	繡帶	花冠		五色汗衫, 새앙머리(동기2인)아락(3), 복술(16)
舞童	純祖28년 (1828,무자) 「進饌儀軌」	卷3, 工伶條	藍團領, 白質黑線中單衣	紅質藍線裳	豆錫綠帛帶	芙蓉花冠	嵩花黑花子	
		卷附編	紅羅袍, 白質黑線中單衣	藍質黑線裳	鶴頂帶	牙光帽	黑靴	綠汗衫 ★항발·아박·포구락 같은
舞童	純祖29년2월 (1829,기축) 「進饌儀軌」		紅色團領 白質黑線中單衣	藍質黑線裳	豆錫綠帛帶	芙蓉冠	嵩花黑靴	嵩花方補
			紅袍 白質黑線中單衣	"	藍也帶	角巾	黑靴	
女伶	純祖29년 (1829,기축) 「進饌儀軌」	卷3, 工伶條	靑,赤,黑,草綠單衫	靑藍色裳 衣紅納裳	紅緞金樓繡帶	花冠	草綠鞋	五色汗衫
女伶	憲宗14년 (1848,무신) 「進饌儀軌」	卷3, 工伶條	靑,紅,黑,白快子	"	"	"	"	"
女伶	高宗14년 (1877,정축) 「進饌儀軌」	卷3, 工伶條	靑,赤,白,柳綠快子	"	"	"	"	"
女伶	高宗29년 (1892,임진) 「進饌儀軌」	卷3, 工伶條	"	"	"	"	"	"
女伶	光武5年 (1901,신축) 「進饌儀軌」 「進宴儀軌」	卷3, 工伶條	"	"	"	"	"	"
女伶	光武6년 (1902,임인) 「進宴儀軌」	卷3, 工伶條	"	"	"	"	"	"

54) 高宗 壬辰年 進饌儀軌, 卷3 樂器風物條.

“舞鼓次備所着服飾四件所入快子四件次(紅藍靑雅玉五色花紋甲紗各四尺五寸)戰帶四件次(每件藍鱗紋甲紗長八尺廣三寸五分).”

타났는데, 이 服飾들은 춤사위와 함께 東洋의 五方設에 근거하여 이루어 졌다.

2) 牙拍

牙拍은 高麗때에 지은 춤으로 4사람이 작은 拍을 치며 추는 춤으로 임금님을 송수하는 내용이다. 動動歌詞에 맞추어 춤추는데서 動動이라고 하였고 世宗 31年(1449年) 10月까지도 動動才의 이름이 보이나, 그 뒤 「樂學軌範」에서는 상아로 만든 작은 拍을 두 손에 들고 長短에 맞추어 치는 무구의 이름으로 바꾸어 牙拍이라 하였다. 조선말기까지 전승되었으나 현재는 전하지 않는다. 牙拍은 상아로 만들며, 고래뼈(경골)·쇠뼈(우골)·사슴뿔(늑각) 따위로 대용하기도 하는데 모두 6편으로, 녹피로 꿰고 五色의 매듭을 드리운다.⁵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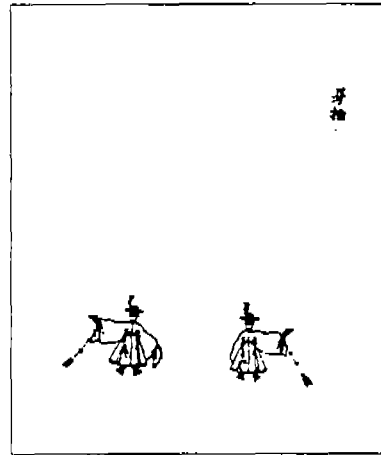
<圖 32>은 정조19년 아박으로 앞에 있는 7인의 여령은 아박을 들고 있으며, 아래에는 22인의 여령과 2인의 등기가 보인다. 여령은 화관·황초삼·홍초삼·수대를 입고, 등기는 쌍계·단의를 입고 있다.



<圖 32> 正祖 乙卯, 牙拍

<圖 33>은 純祖28년 아박으로 2인의 무동이 추고 있다. 純祖 戊子 「進爵儀軌」 卷3 工伶條에 “아박무동의 복식은 白質黑線中單衣·黑團領·紅質藍線裳·豆錫綠呈帶·芙蓉花冠·畫花黑靴子”⁵⁶⁾를 입었고, 卷附編 工伶條에는 “아광모·백질남선중단의·홍라포·남질흑선상·화정대·흑화에 녹한삼을 하였다.”⁵⁷⁾라 하였다.

<圖 34>는 순조29년 아박으로 외연에는 무동 2인이 아박을 들고 4인은 춤만 추고 있으며, 내연에는 5인의 여령이 아박을 들고 춤을 추고 있다. 純祖 己丑 「進儀儀軌」 卷3 工伶條에 “아박무동은 부용관·백질흑선중단의·흑색단령·홍질남선상·두석녹정대·화화흑화를 신었다.”⁵⁸⁾ 卷附編 工伶條에는 “아박무동은 복두를 쓰고 백질흑선중단의와 남포를 입고, 홍야대를 띠고 흑화를 신었다.”⁵⁹⁾고 했다.



<圖 33> 純祖 戊子, 牙拍

55) 「樂學軌範」, 卷 8, 鄉樂呈才樂器圖設.

“牙拍象牙爲之或用鯨骨牛骨鹿角之類假造凡六片以鹿皮貫之垂五色結子.”

56) 純祖 戊子 「進爵儀軌」, 卷3 工伶條.

牙拍舞童着黑團領紅質藍線裳…以上冠帶靴子中單衣並與廣袖舞同

57) 純祖 戊子 「進爵儀軌」, 卷附編 工伶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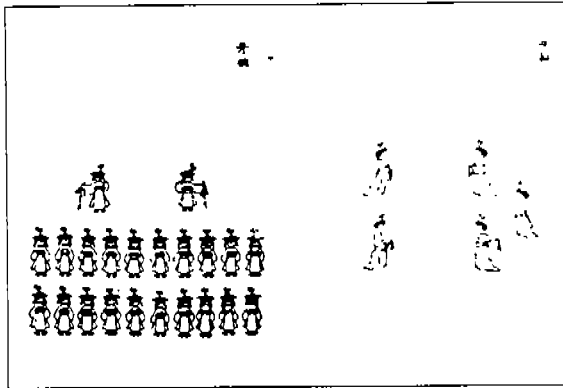
牙拍拋毬樂舞童戴研光帽着紅羅袍白質藍線中單衣藍質黑線裳繫綠汗衫黑靴

58) 純祖 己丑 「進儀儀軌」, 卷3 工伶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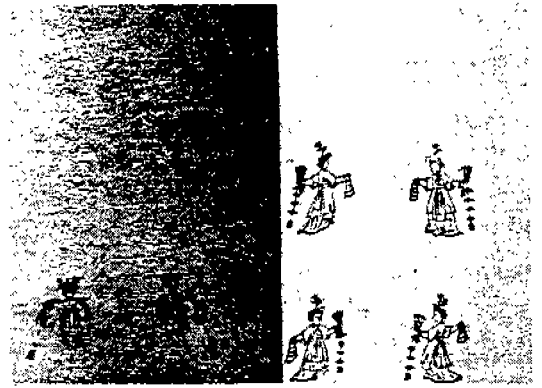
牙拍舞童着紅質藍線裳黑色團領畫花方補…以上中單衣冠帶靴子並與初舞同

59) 純祖 己丑 「進儀儀軌」, 卷附編 工伶條.

牙拍…舞童戴幘頭着藍袍白質黑線中單衣紅也帶黑靴



〈圖34〉純祖 己丑, 牙拍



〈圖 35〉光武 壬寅, 牙拍

〈圖 35〉는 광무6년 아박으로 외연에는 2인의 무동이, 내연에는 4인의 여령이 추었다.

牙拍복식을 시대별로 나타내면 〈表-7〉과 같다.

〈表-7〉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박은 정조때에는 여기들이 화관·황초삼·홍초삼·수대를 입고 추

었으나 순조때부터는 무동들이 주로 추면서 복식도 변화되었으며 또한 같은 시대라도 춤을 추는 장소에 따라 자경전에서는 흑단령, 홍질남선상, 두석낙정대, 부용화관을 하고 연경당에서는 홍라포에 남질흑선상, 학정대, 硯光帽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表-7〉 牙拍服飾의 時代的 變遷

	출처	상 의	하 의	대	관	신	
女妓	*正祖19年 (1795, 을묘) 「園幸乙卯整理儀軌」	黃紵衫	紅紵裳	纈帶	花冠(32인) 새앙머리(2인)		五色汗衫 牙拍(3)
舞童	純祖28年 (1828, 무자) 「進饌儀軌」	卷3, 上伶條 (연경당)	紅羅袍 白質黑線中單衣	藍質黑線裳	鶴頂帶	牙光帽	黑靴 綠汗衫
舞童		卷附編 (자경전)	黑團領 白質黑線中單衣	紅質藍線裳	豆錫綠纈帶	芙蓉花冠	齒花黑靴子
舞童	純祖29年 (1829, 기축) 「進饌儀軌」	卷3, 上伶條	黑色團領 白質黑線中單衣	"	"	芙蓉冠	齒花黑靴 齒花方補
舞童		卷附編	紅袍, 白質黑線中單衣	藍也帶	角巾	黑靴	
舞童	高宗29年(1892, 임진) 「進饌儀軌」						
"	光武5年(1901, 신축) 「進饌儀軌」						
"	光武6年(1902, 임인) 「進宴儀軌」						

이것은 무등이 춤을 출 때 의복에 다채로움을 주어 춤의 화려함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효과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Ⅲ. 宮中舞踊服色에 나타난 陰陽五行思想

음양오행사상은 伏羲氏때 창안되고 周文王때 완성된 뒤 孔子에 와서 보완된 「周易」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리고 「戰國末年에 鄒衍⁶⁰⁾이 5가지 요소의 조합을 이용하여 五行相勝說에 의한 '五運學說(五德歷運學說)'을 창립하여 2000여년 간이나 中國

歷代服色制度⁶¹⁾의 이론적 근거가 된 매우 중요한 제도였다."⁶²⁾

중국의 문화에서는 복식문화가 법제화 되었기 때문에 복식 그 자체의 의미는 법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는데 그러한 복식문화를 우리나라는 그대로 수용하였고 이로인해 중국의 복식에 많은 영향을 준 음양오행사상이 우리나라 복식에도 영향을 주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상고시대 韓民族이 처해 있었던 지리적 배경과 他民族과의 접촉관계를 보면, 西方에는 漢族이 있고, 西北方에는 匈奴 또는 東胡族이 있었

〈表-8〉 五行의 五元素의 相關關係

	木	火	土	金	水
五方	東	南	中央	西	北
五時	春	夏	季夏	秋	冬
五色	青	赤	黃	白	黑
五帝	青帝	赤帝	黃帝	白帝	黑帝
五聲	角	徵	宮	商	羽
五常	仁	禮	信	義	智
五郊	東方	南郊	中郊	西郊	北郊
五味	酸	苦	甘	辛	鹽
五數	八	七	五	九	六
五畜	雞	羊	牛	馬	豚
五星	木星	火星	土星	金星	水星
五位	左	右	中	上	下
五穀	麥	黍	稷	稻	豆
五情	喜	樂	慾	怒	哀
五德	木	火	土	金	水
五神	句芒	祝融	后土	蓐收	玄冥
洪範五彩	肝臟	心臟	脾臟	肺臟	腎臟
四獸	青龍	朱雀		白虎	玄武
一日中	朝	晡	日中央	夕	夜
五臭	노린내	불내	향내	비린내	썩는내
반응	탄생	성장	변화	수확	저장
오관	눈	혀	입	코	귀
신체	근육	혈맥	살	피부·털	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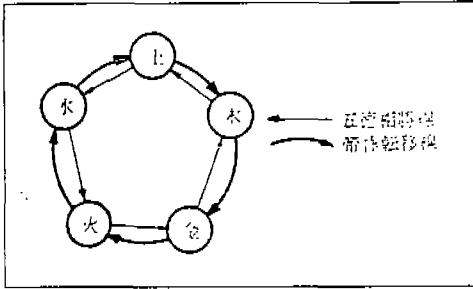
60) 김홍경편역, 「음양오행설의 연구」, 신지서원, 1993, p.294.

鄒衍(B.C.305-B.C.240)은 전국시대 말기를 살았던 오행가의 주요한 지도자이다. 그는 제나라 사람이었으며, 당시에 각국의 통치자로 부터 상당한 존경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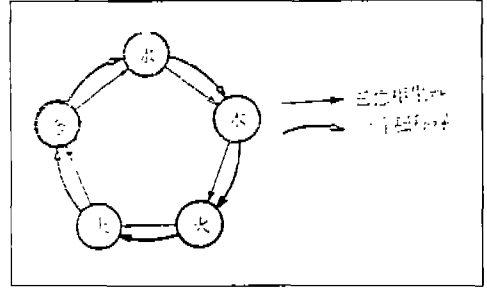
62) 「禮記」月令條.

天子가 제사를 지낼때 孟春(1월)에는 青旗를 달고 青衣를 입으며, 孟夏(4월)에는 赤旗를 달고 朱衣를 입고, 季夏(6월)에는 黃旗를 달고 黃衣를 입으며, 孟秋(7월)에는 白旗를 달고 白衣를 입고, 孟冬(10월)에는 玄旗를 달고 黑衣를 입었다.

62) 王宇清, 「中國服裝史綱」, 中華大典編印會刊行, p.119.



<「歷運服色考」, 五行相勝圖>



<「歷運服色考」, 五行相生圖>

으며, 東北方에는 肅真族 등이 분포되어 있어 그들과의 접촉이 빈번하였다. 그 중에서도 漢民族의 교류가 많아지면서 中國文物이 가장 많이 유입되었다.

1) 일반무동의 복색

포구락 무동의 복색은 홍포·남질흑선상·백질남선중단의·남야대를 입거나, 연화대무와 같이 녹라포·홍질남선상·학정대를 하거나, 무고와 같이 남포·백질흑선중단의·홍질남선상을·두석녹정대를 하거나, 아박과 같이 흑단령·백질흑선중단의·홍질남선상·두석녹정대를 하였다.

<圖 36>에서 보면 무동복식은 상의와 하의, 상의와 대, 상의 바탕색과 緣, 중단의의 바탕색과 緣은 거의 모두가 상생색으로 되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일반여령복색

「樂學軌範」에 당악정재 현선도의 여령복색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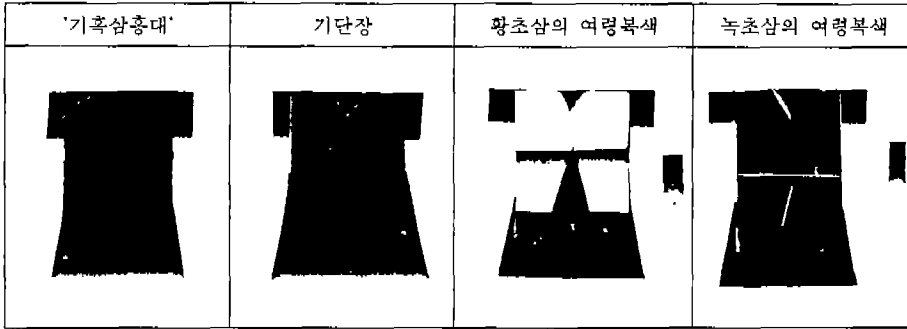
'기혹삼흉대'라고 하여 남적고리·흑장삼·홍색상을 입는 것과 무고·아박과 같이 속악정재 여령복식인 '기단장'이라 하여 남적고리·단의·홍색상을 입었다가, 일반여령들은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황초삼·이남색상표홍초상·홍단수대·초록혜·오색한삼을 하였다. 광무 5년과 6년에는 황초삼만 녹초삼으로 바뀌고 있다.

「樂學軌範」·「進爵·進饌·進宴儀軌」에 나타난 일반여령복색을 그 구성별로 상생과 상극관계를 나타내면 <表-9>와 같다.

<圖 37>에서 보면 상의인 흑색과 홍색의 상, 흑색의 衫과 홍색의 대에서 흑·홍의 상극색의 배색관계를 볼 수 있고, 남색의 저고리와 홍색의 치마는 홍·남의 상생색으로 되어있어 덜 화려하다. 또 상의인 남색의 저고리와 하의인 홍색의 상에서 홍·청의 상생관계를 볼 수 있고, 홍색의 단의·상·帶를 매어 화려하게 꾸며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 상의인 황색의 衫과 하의인 홍색의 상이 황·홍

포구락무동복색	연화대무무동복색	무고무동복색	아박무동복색

<圖 36> 일반무동복색



<圖 37> 일반여령복색

<表-9> 일반 궁중여령복색과 음양오행

「樂學軌範」	藍赤古里	黑長衫	丹衣	紅帶	紅裳	襪裙	비고	
	남색	흑색	걸감(홍색) 안감(홍색)	홍색	홍색	백색	남-흑 흑-홍	상생 상극
「進爵·進簾·進宴儀軌」	黃納衫	綠納衫	裏藍色裳表紅納裳	紅緞總帶	草綠鞋	五色汗衫	비고	
	황색	녹색	걸(홍색) 안(남색)	홍색	초록색		황-홍 홍-남 녹-홍 황-초록	상생 상생 상생 상극

<表-10>연화대복색과 음양오행⁶³⁾

舞童服飾	綠羅袍	白質黑線中單衣	紅質藍線裳	鶴頂帶	飛頭履	비고	
	녹색	바탕(백색) 緣(흑색)	바탕(홍색) 緣(남색)			녹-홍 백-흑 홍-남	상생 상생 상생
童妓服飾	蛤笠	丹衣	裳	帶	眞紅緞鞋	비고	
	걸감(남색) 안감(홍색) 정자(홍색) 화통(홍·남색)	걸감(초록) 안감(홍색) 깃(홍색) 수구(홍·백색)	바탕(홍색) 上端(초록색)	홍색대	홍색	홍-남 초록-홍 홍-백	상생 상생 상극

의 상생을 이루고, 걸치마인 홍색과 속치마인 남색이 홍·남의 상생을 이룬다. 그러나 황색의衫 위의 홍색띠는 상극색을 이루고 있다. 혹은 상의인 녹색의衫과 하의인 홍색의 상은 청·홍의 상생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다르다.

3) 蓮花臺

연화대무의 복식은 무동이 행하였을 때와 여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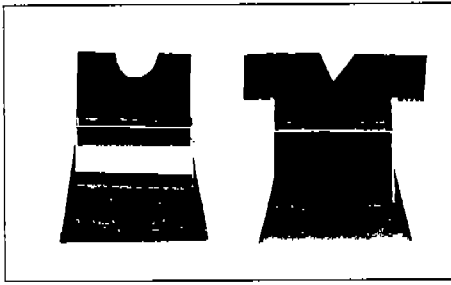
등기가 행했을 때가 있다.

무동의 복식은 상의는 백질후선중단의·녹라포, 하의는 홍질남선상을 입었다.

여령·등기가 행할 때에는 등기의 복식이 특징적인데, 등기는 상의는 초록단의, 하의는 홍라상을 입고, 홍대·진홍단체를 신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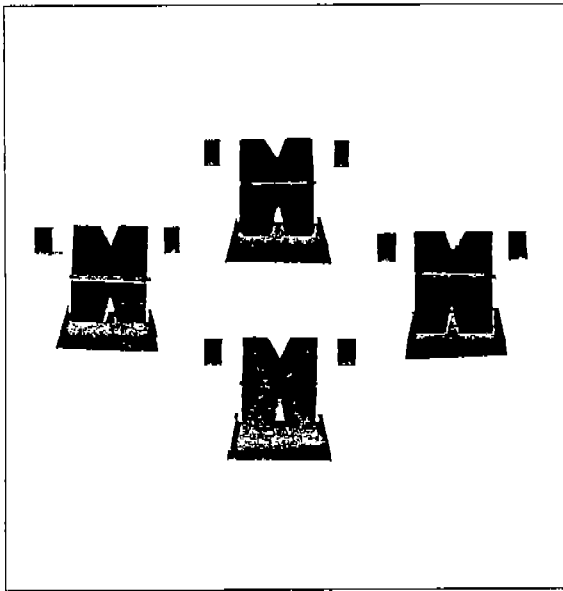
연화대복색을 그 구성별로 상생과 상극관계를 보면 <表-10>과 같다.

63) 純祖 戊子 「進爵儀軌」, 卷附編 工伶條.
高宗 壬辰 「進簾儀軌」, 卷3 樂器風物條.
光武 壬寅 「進宴儀軌」, 卷3 樂器風物條.



〈圖 38〉 연화대무 무동과 동기복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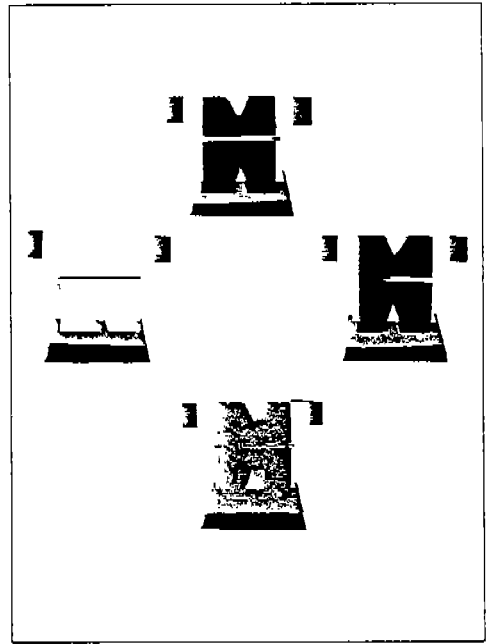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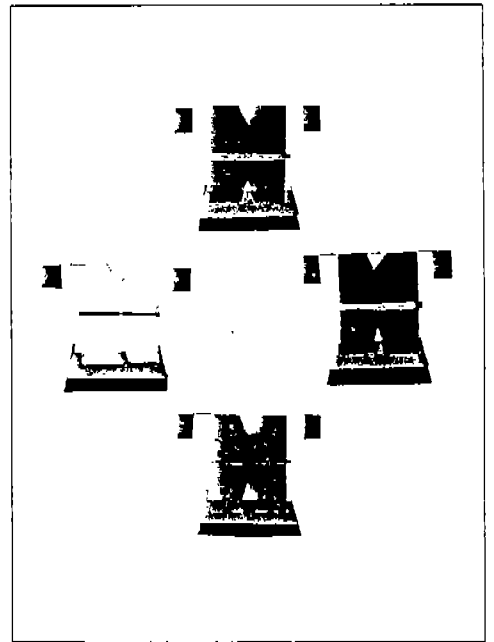
연화대 무동복식은 상의의 녹색 단령과 하의의 홍색상, 홍색상과 緣에서 홍·남의 상생배색을, 중단의 바탕인 백색과 緣의 흑색에서 백·흑의 상생관계를 볼 수 있었다.

〈圖 38〉에서 보면 또 연화대 동기복식은 합림의 걸감과 안감, 단의의 걸감과 안감, 상의 건감과 안감, 상의인 단의의 초록색과 하의 홍색상의 배색에서 홍·청의 상생배색을 볼 수 있고, 단의의 袖口의 색동이 홍·백색으로 상극색의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징적인 것은 동기를 나타낸 탓인지 홍색이 많이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었다.

②



③



〈圖 39〉 무고 여령복식

4) 舞鼓

무고의 복식은 무동이 행하였을 때와 여령이 행했을 때가 있다.

무동의 복식은 2종류로, 상의는 남단령·백질흑선중단의, 하의는 홍질남선상을 입는 것과 상의는 홍라포·백질남선중단의, 하의는 남질흑선상에 녹한삼을 쓰는 것이 있다.

무고의 여령복식은 황초삼·홍초상 위에 시대에 따라 청·적·흑·초록의 패자→청·홍·흑·백 패자→청·적·백·유록 패자를 입었다.

무고무동복색은 상의가 홍색에는 하의는 남색상, 상의가 남색에는 홍색상을 입어 홍·청의 상생관계를 이루고, 裳의 바탕색과 緣도 홍·청의 상생관계를 이루고 있으며, 중단의의 바탕색과 緣도 백·흑의 상생관계로 되어 있다. 특히 홍포일 때 녹한삼을 하여 상생의 배색을 이루고 있다.

〈圖 39〉에서 보면 무고 여령복식은 일반여령복식 위에 四方색인 패자를 입고, 동·서·남·북의 四方에서 춤을 추고 있다.

이상에서 궁중무복색과 음악양행사상을 살펴본다. 무복의 색은 '춤'이라는 무희적 성격으로 인해 상생의 조화를 많이 나타내어 밝고 힘있는 느낌을 표현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의와 하의, 걸감과 안감, 바탕색과 緣, 裳과 帶, 걸감과 깃, 걸감과 고름 등 대부분 청·홍, 홍·남, 적·청, 적·황, 홍·초록, 흑·백 등 상생색의 결합으로 되어 있었다.

또 흥미로운 것은 의복에서 음악양행의 표현이 미약하거나 색채의 단조로움이 있으면 의물이나 신발, 冠 등으로 색채의 전체적 조화를 이룬 것이며, 특히 오색 한삼의 사용에서 오색이란 꼭 오방색이 아니라 '우주에 존재할 수 있는 모든색'의 표현으로 춤의 생동감을 가장 잘 표현해주었다. 옷의 배색 방법은 천에 물감으로 그린 것이 아니라 단색으로 되어 있는 각각 다른 천으로 상생·상극배색을 하였다.

또 처용무나 무고, 육화대는 춤의 방위와 의복색

이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궁중무용복색은 시대에 따라 색채의 변화가 있기는 해도 궁중무용의 의의를 고수하려는 의지에 따라 복색은 큰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다.

V. 結 論

1. 고려시대 발생된 궁중무용복색의 변천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고려시대는 불교를 숭상하여, 불교행사인 연등회와 팔관회 때 추는 宮中舞踊을 통해 볼 수 있다. 宮中舞踊은 중국에서 들어온 唐樂로才와 신라시대부터 전해오던 鄉樂로才가 행해졌다. 唐樂로才에는 獻仙桃·壽延長·拋毬樂·五羊仙·蓮花臺舞가 있고, 鄉樂로才에는 舞鼓·動動(牙拍)이 있었다. 고려시대 복식의 형태는 「고려사」에 唐樂로才에는 '妓黑衫紅帶', 鄉樂로才에는 '妓丹裝'이라고만 있을 뿐 구체적인 복식의 형태는 언급되지 않고 있다. 이들의 복식은 조선시대 세종 때까지 입혀졌던 것으로, 「악학계범」女妓服飾條에 단의·흑장삼·남적고리·상·균의 복식이 있는데, 당악정재 복식에는 흑장삼을, 향악정재 복식에는 단의를 입은 것을 알 수 있다.

포구락의 여령의 복식은 일반여령복식의 형태이다. 무동복식은 연향의 때와 장소에 따라 복식을 달리하여, 홍라포·남질흑선상·녹한삼, 흑은 흑단령·홍질남선상을 하여, 춤의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하였던 것 같다.

연화대무의 복식은 무동의 복식은 녹라포·홍질남선상을 착용하였으나, 여령이 춤 때는 동기2인과 여령으로 구성되는데, 동기의 복식은 초록단의·홍라상·홍초말근을 입고, 여령은 황초삼(녹초삼)·홍초상으로 구성되고 백한삼·옥색한삼을 사용하여 다른 춤과 비교하면 특징적이었다.

무고의 무동복식은 남·홍단령에 홍질남선상·

남질흑선상을 연향의 때와 장소에 따라 달리하여 복식의 단조로움을 피하고, 춤의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하였던 것 같다. 여령의 복식은 일반여령복인 황초삼(녹초삼)·홍초상 위에 4方的 單衫이나 掛子を 덧 입었다. 순조 기축에는 청·적·흑·초록단삼을, 현종 무신에는 청·홍·흑·백패자를, 고종 정축 이후는 청·적·백·유록패자를 입었으나 모두 무고의 춤사위와 함께 동양의 음양오행설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던 것 같다. 아박의 복식은 여령들이 출 때는 화관·황초삼·홍초상·수대틀 입었으나, 무동들이 출 때는 같은 시대라도 춤을 추는 장소에 따라 흑단령·홍질남선상·두석녹정대·부용화관을 하거나, 홍리포·남질흑선상·학정대·아광모를 하여 의복을 다채롭게 하여 춤을 화려하게 돋보이게 하였다.

2. 궁중무용복색에 나타난 음양오행사상은 다음과 같다.

음양오행사상은 생활철학으로서 우주와 인간생활의 모든 현상을 지배한다는 생각으로 일반생활양식 뿐만 아니라 궁중무용 복색에도 그 영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음양과의 조화, 서로 상생·상극됨으로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가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안감과 결감의 대비, 상의와 하의의 조화, 소매와 끝동의 대비, 상의와 띠의 배합, 기본복식과 장신구·관의 사용, 춤의 내용과 그 의미를 표현하려는 복색사용 등 보이는 곳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까지 의미를 두어 생활문화화된 음양오행사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가장 많이 쓰인 색은 무동복식에서는 전체적으로 초록과 남의 배색이 많아 청색이 주류를 이루고, 여령복식에서는 황색과 홍색의 배색이 많이 나타난다. 즉 남과 여를 양과 음 이치로 색으로서 구분을 준 것이다.

궁중무용에서 색채 표현은 홍·청·녹·황·백·이 주조를 이루고 이 색이 서로 배색될 때 보색의 강

렬한 대비효과를 나타내어 원색의 화려함과 강렬한 장식성을 나타내게 된다. 춤의 본질적인 역할은 감정의 고조를 도우는데 있다는 궁중무용에서 복식의 색채대비 효과가 연희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궁중무용복식의 형태와 그 상징성을 고찰하였는데 시대적으로 약간의 변화는 있어도 전체적인 면에서 복식 그 자체를 고수하려는 옛 선인들의 의도를 읽을 수 있었고, 또 의미를 부여하려는 복식에 대한 자세를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올바른 전통문화 계승에 도움이 된다는 것에 그 의의를 두고자 한다.

參考文獻

- 高麗史
- 高宗 壬辰 「進饗儀軌」, 卷3 樂器風物條.
- 李惠求, 「韓國音樂研究」, 國民音樂研究會, 1957.
- 光武 壬寅 「進宴儀軌」, 卷3 樂器風物條.
- 歐陽子儀, 「中國舞蹈史」, 蘭亭書店, 中華民國74年.
- 金千興, “韓國舞蹈의 種類”, 「大世界百科辭典」 第16卷, 1973.
- 남후선·이정옥, “宮中舞蹈服飾에 관한 研究”(제1보)-삼국시대 발생된 무용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2(2), 1998.9)
- 成慶麟, 「朝鮮의 雅樂」, 博文出版社, 1947..
- 成慶麟, 「韓國傳統舞蹈」, 一志社, 1979.
- 「宋史」樂志, 卷142, 樂志六, 中華書局聚.
- 「宋史」卷15, 女弟子除舞條.
- 純祖 己丑 「進饗儀軌」, 卷1 樂章條.
- 純祖 戊子 「進饗儀軌」, 卷附編 工伶條.
- 「樂學軌範」, 卷9. 冠服圖說條·女妓服飾條.
- 王宇清, 「中國服裝史綱」, 中華大典編印會.
- 李能和, 「朝鮮解語花史」, 民俗院, 1981.
- 李惠求, 「韓國音樂研究」, 國民音樂研究會, 1957.

- 張師助, 「韓國舞蹈概論」, 大光文化史, 1989.
- 張師助, 「韓國音樂史」
- 張師助, 「韓國傳統舞蹈研究」
- 車柱環譯, 「高麗史樂志」, 乙酉文化社.
- 「太平環宇記」 (고대 중국의 신화를 담은책), 卷15, 廣州條
- 弘文館纂「增補文獻備考」 卷106.
- 憲宗 戊申 「進饌儀軌」, 卷3 樂器風物條

ABSTRACT

A Study on the Ritual Dancing Suit of Koryo Dynasty

This thesis focuses on how the dancing suit frequently used in the Korean royal court has been chronologically changed to that of the

modern times. It also aims at how the implicit symbols shown in the royal court dancing suit are related to the traditional concepts and thoughts on Lunar-Solar-Five-Natural-Elements(Eum-Yang-Oh-Haeng).

The results of this thesis are as follows.

In the historical period of Koryo dynasty, the Buddhists religious ceremonies of YeonDueng-Hoi and PalGwan-Hoi favoured a ritual dancing of DangAakJeongJae originated from the old ancient China, and at the same time it also employed HyangAakJeongJae of Sin-la dynasty. Especially, the DangAakJeongJae contained the kinds of SooSeon-Dyo, Soo-YeonJang, PoTae-Aak, OhYang-Seon, and YeonHwaDae-Mu; and the HyangAakJeongJae dealt with Moo-Go and Aa-Bak.